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동창회 지표 • 참여 • 협력 • 영광

發行人 金在淳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金嘆宰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 FAX: 703-0755

銀行계로番號 7500875
對替口座 010017-31-0621565

제 224호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6년 11월 1일

[1]



마음 터놓고 한자리에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진행된 「서울대가족 친목등산대회」에는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동문가족들이 모여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모교인 서울대학교가 개교5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도 지난 15일 개교기념식에 참여하고 해외동문 초청모임을 가진데 이어 21일에는 국회지부 창립총회를 열었고, 27일에도 동문끼리 모여 성대한 등산대회를 가졌다.

이런 행사들이 모두 50년의 서울대역사를 기록하는 의미를 지녔고 동문들간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음에 틀림없다. 다른 대학들보다 서울

대로서는 이런 행사를 좀더 밀도있게 치를 필요가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서울대는 많은 일꾼을 배출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임에는 틀림없으나 모래알같이 흩어져있어 대학

쓸모 있는 인재 양산해야

동문간의 결속과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주 만나면서 행사자체를 알뜰하고 실속있게 치를 경우 동문들간의 끈끈한 관계와 결속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다.

서울대 동문간의 결속과 유대는 학교이기주의를 강화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우리나라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개교50주년을 맞은 서울대는 앞으로도 심기일전하여 대학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대의 역할과 사명은 서울대를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으로 탈바꿈시켜 21세기의 국제화, 정보화, 전문화 추세에 맞추어 더욱 쓸모있는 인재를 양산하는 일이다. 그리고 대학의 도덕적, 윤리적 뼈대를 튼튼히 하여 나라의 지도계층을 두껍게 하는 것이야말로 서울대의 사명일 것이다. (靑)

「서울대가족 친목등산대회」 축제 한마당



6km의 힘찬 행군 참석한 동문들이 관악캠퍼스 대운동장에서 관악산계곡을 거쳐 안양소재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수목원에 이르는 대행군을 했다.



그린스카우트 선서 金時衡동문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을 더럽히지 않고 푸른 세상, 푸르른 지구를 가꾸는 환경파수꾼으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한다』고 선서를 했다.



영원한 가족 이 보자람이며 동문들의 단합된 모습을 개교 50주년 기념모자를 들이 수원지부 수원지부



푸짐한 경품 추첨 金在淳회장이 추첨을 통해 당첨된 金孝淳(75년 齒大卒)동문에게 직접 컴퓨터를 전달했다.

미술작품

金正淑作



「계란 83」, 90 X 72.7cm 캔버스에 오일.

〈작가 약력〉

△55년 숙명여고 졸업
△59년 서울대 사대(영어 교육) 졸업
△60~62년 美 오하이오대 대학원 수학
△75년 홍익대 대학원(서양화) 졸업
△74~96년 구조전
△78~89년 개인전 4회
△79년 강원현대미술제
△81년 한국미술81전
△82년 한불 여류화가전
△83년 파리 앙데팡당전

△84년 서양화 여류작가 9인전
△85년 한국현대미술 31인의 여류전, 군산 국제현대미술전
△89~93년 아세아국제미술전
△95년 「미술의 해」 한국미술위상전, 미협전, 숙란전, 홍익전, 여류화가전
△現 숙란전 고문, 미협·여류화가회·구조·홍익전 회원

서울대가족 친목등산대회



金희장이 동문들의 성원과 열기로 가슴벅차다고 말했다.

본회는 지난 27일 金在淳회장, 모교 鮮于仲皓총장, 동창회 임직원과 모교 관계자를 비롯한 5천여명의 동문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그린스카우트 운동을 겸한 개교 50주년 기념 「서울대가족 친목등산대회」를 성대히 개최했다.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식전행사는 金時衡산업은행 총재의 그린스카우트 선서로 시작됐으며 金在淳회장은

고 당부했다.

蔡賢九(82년 師大卒)동문과 金珍我(人文大 3년)양의 사회로 진행된 여흥시간에는 모교 동아리 「단풍연」의 사물놀이, 「메아리」의 합창이 있었으며 鮮于仲皓총장과 李仁濟경기도지사 등을 비롯해 각 기(과)별 대표들의 멋들어진 노래가 어우러져 흥겨운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또한 이날 행사를 위해 金泳

관악산계곡 말끔히 청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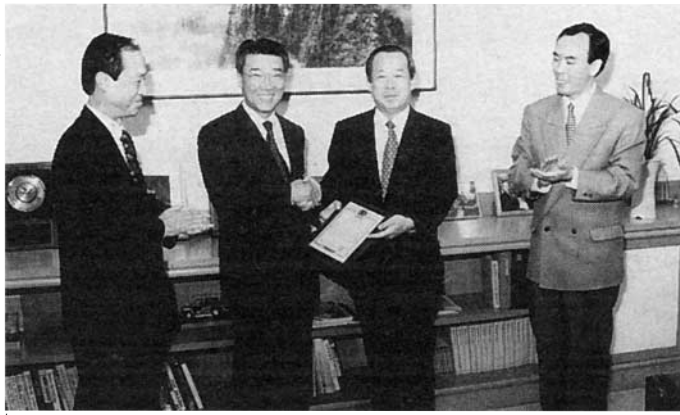
대회를 통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 정취에 흠뻑 취해보고 찬란한 단풍색과 향기로운 풀내음, 정갈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그동안 바래기 쉬웠던 우리들의 감성을 되살려보자」고 역설했다.

모교 鮮于仲皓총장은 「수많은 동문들이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모교를 찾아와 함께 등산하니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吳明그린스카우트 총재(동아일보 사장)는 축사를 통해 「민주화와 산업화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서울대 동문들이 환경보호에도 앞장서 주길 바란다」

三代통령을 비롯한 2백여명의 동문들이 협찬해주었다. 특히 동문가족들의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鄭夢準(75년 商大卒·국회의원)동문이 협찬한 자동차(엑센트)의 행운은 李秉培(58년 法大卒·창신화학 회장)동문에게, 李俊鎔(60년 商大卒·대림산업회장)동문이 협찬한 오토바이의 행운은 朴觀泳(57년 師大卒)동문에게 돌아갔다. (협찬자 명단 6~8면 참조)

한편 행사를 마친 동문가족들은 등산객이 버린 오물과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행사장 주변에서 청결운동을 펼쳤다.

金柱津 아남그룹 회장 「특지장학금」 5억 약정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이 金柱津(좌에서 두번째)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아남그룹 회장인 金柱津(54년 法大入·본회 부회장)동문이 지난 10월 2일 특지 장학금으로 5억원을 약정하고 1차로 1억원

을 본회에 출연했다.

이로써 지난 2월 27일 洪性大(63년 文理大卒)상산학원 이사장이 출연한 2억원, 3월 19일

李吉女(57년 醫大卒)길병원 이사장이 출연한 1억원, 7월25일 金讚淑(60년 齒大卒)청아치과병원장이 출연한 1억원 등 총 5억원을 예치, 4개 개별 장학회가 설립 운영되게 됐다.

특지 장학금(연구비)제도는 모교 재학생이나 교수에게 지원을 하고 싶으나 개인 장학법인 설립이 어려운 동문을 대신하여, 본인이 출연한 기금을 총동창회에서 대신 관리해주고, 본인이 원하는 학생 또는 교수에게 본인의 이름으로 장학금(연구비)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한편, 영구 지급을 위해 장학금은 1구와 5천만원, 연구비는 1구와 1억원을 모계좌로 하여 수입이자분으로 운영된다. 출연 안내: 본회 사무처(전화 702-2233)

15대 국회의원 모임 「관악회」 정식 출범



개교 50주년을 맞아 모교 출신 제15대 국회의원 1백67명이 지난 21일 국회 귀빈식당에 모여 「관악회」를 창립했다.

이날 모임에서 최고참인 金命潤(46년 法大卒)동문이 회장에, 鄭石謨(52년 法大卒), 趙淳昇(53년 文理大卒), 徐廷和(55년 法大卒), 鄭喜卿(55년 師大

卒), 沈鼎求(57년 商大卒)동문이 부회장에, 朴煥太(61년 法大卒), 李廷武(64년 法大卒)동문이 감사에 선임됐다.

이날 모임은 간사장을 맡은 玄敬大(64년 法大卒)동문의 경과보고에 이어 金命潤회장의 인사말, 본회 鄭宗澤상임부회장의 축사, 가수 출신인 崔喜準

(59년 法大卒)동문의 축기순으로 진행됐다.

모교 출신 제15대 국회의원 은 모두 1백67명으로 신한국당 97명, 국민회의 34명, 자민련 28명, 민주당 5명, 무소속 3명이다.

교육학과

창설 50주년 행사 가져

교육학과동창회(회장 金宗西)는 지난 2일과 3일 양일간 교육학과 창설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 첫날인 2일에는 모교 교수회관에서 「한국의 교육학: 지난 50년의 성과와 향후과제」를 주제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3일에는 모교 방문 행사와 동문 화합의 자리를 마련했다.

회원들은 「교육학과 창설 50주년 기념 장학기금 및 발전기금」(가칭)을 모금, 동창회 사업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雙)

등산대회 협찬자

지난 27일 농생대 수목원에서 거행된 친목등산대회는 5천여명의 동문과 동문가족이 참가해 대성황을 이뤘고 참가자들은 풍성한 가을을 한껏 만끽하며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친목등산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준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대회를 위해 협찬금품을 출연해주신 각계 동문들을 소개한다.

金泳三



51년 文理大卒·本會顧問
대통령
금일봉

金竣成



42년 商大卒·本會顧問
이수화학회장
一金 50만원

金鍾泌



46년 師大人·本會顧問
자민련총재
一金 1백만원

金在淳



52년 商大卒·本會會長
샘터사이사장
펜티엄 컴퓨터 1대

崔主鎬



39년 農大卒·本會名譽會長
前우성그룹회장
一金 1백만원

鮮于仲皓



63년 工大卒
모교총장
어학교재 1세트

鄭宗澤



58년 法大卒·本會常任副會長
환경부장관
자전거 2대

金道昶



47년 法大卒·冠岳會理事
변호사
一金 50만원

河永基



48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제일생명고문
햄 15세트

金相廈



49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一金 50만원

趙淳



49년 商大卒·本會副會長
서울시장
一金 50만원

張禮準



49년 商大卒·商大同窓會長
상신울스테이트생명명예회장
一金 50만원

李光魯



51년 工大卒·大學院同窓會長
모교 명예교수
一金 50만원

具平會



51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한국무역협회장
一金 50만원

白樂皖



51년 醫大卒·本會副會長
인제대총장
一金 50만원

鄭哲圭



52년 工大卒·工大同窓會長
대성고무화학사장
一金 50만원

朴振煥



52년 農大卒·農大同窓會長
前농협전문대학장
一金 50만원

鄭石謨



52년 法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一金 30만원

金性洙



52년 法大卒·本會理事
오양수산회장
참치캔 10세트

金許南



52년 法大卒·本會副會長
국회의원
一金 50만원

閔丙哲



52년 醫大卒·本會理事
서울중앙병원장
一金 50만원

姜信浩



52년 醫大卒·本會副會長
동아계약회장
음료수 3천5백켤

李達雨



53년 工大卒·本會副會長
한국코트렐회장
一金 50만원

金炳珍



50년 工大人·本會理事
대우엔지니어링회장
一金 50만원

朴晟容



50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금호그룹 명예회장
一金 1백만원

朴承宰



55년 工大卒·本會理事
샘표식품사장
간장 3천6백병

金德洙



55년 工大卒·本會理事
장천화학공업사장
一金 50만원

金善弘



55년 工大卒·本會副會長
기아그룹회장
一金 50만원

方孝宣



55년 文理大卒·本會監事
세무법인성광사회장
一金 50만원

李信子



55년 美大卒·美大同窓會長
덕성여대교수
一金 50만원

李奭熙



55년 法大卒·法大同窓會長
대우JAPAN회장
一金 50만원

申榮均



55년 商大卒·本會副會長
국회의원
一金 1백만원

朴佑炳



56년 工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一金 30만원

李柱範



56년 工大卒·本會理事
쌍용그룹총괄부회장
一金 50만원

金貞植



56년 工大卒·本會副會長
대덕전자회장
一金 50만원

韓甲洙



56년 文理大卒·本會理事
한국가스공사사장
一金 50만원

閔丙峻



56년 師大卒·師大同窓會長
두산개발부회장
맥주 3천5백켤

李乃均



56년 商大卒·冠岳會理事
(주)삼화도기사장
식기 18세트

姜晉佑



56년 商大卒·本會理事
롯데쇼핑사장
一金 1백만원

金範來



56년 獸醫大卒·獸醫大同窓會長
(주)동우회장
一金 50만원

宋斗灝



56년 醫大卒·本會副會長
중앙복지문제연구소 이사장
一金 50만원

郭厚燮



56년 師大卒·本會理事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
一金 50만원

李洪九



53년 法大人·本會理事
신한국당 대표위원
一金 30만원

徐廷旭



57년 工大卒·本會理事
한국이동통신사장
一金 50만원

李喜鍾



57년 工大卒·本會理事
LG산전부회장
TV 2대

姜晉求



57년 工大卒·本會副會長
삼성전자회장
비디오 2세트

李宗勳



57년 工大卒·本會副會長
한국전력공사사장
一金 50만원

宋在達



57년 工大卒
동양나일론교문
등산용 잠바 10벌

李憲祖



57년 文理大卒·本會理事
LG인화원회장
一金 50만원

崔珏圭



57년 文理大卒·本會理事
강원도지사
一金 30만원

朴孟浩



57년 文理大卒·本會理事
민음사사장
一金 50만원

李龍兌



57년 文理大卒·自然大同窓會長
삼보컴퓨터회장
一金 50만원

李會昌



57년 法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一金 50만원

趙南煜



57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삼부토건회장
一金 50만원

鄭仁奎



57년 法大卒·本會副會長
현대종합금융회장
一金 50만원

朴炳駿



57년 商大卒·本會理事
강원산업사장
一金 50만원

元容勳



57년 商大卒·本會理事
대림통상사장
압력술 5개

李在鎭



57년 商大卒·本會理事
동화은행장
一金 50만원

金雄世



57년 商大卒·本會理事
롯데월드사장
一金 50만원

李祥根



57년 商大卒·本會理事
신용관리기금이사장
一金 50만원

李吉女



57년 醫大卒·醫大同窓會長
의료법인 길병원이사장
一金 50만원

張翼龍



58년 工大卒·本會副會長
(주)서광회장
티셔츠 10벌, 화장품 20세트

南時旭



58년 文理大卒·本會理事
문화일보사장
一金 50만원

李漢東



58년 法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一金 30만원

金光鉉



58년 法大卒
한국장기신포은행장
一金 50만원

李漢雄



58년 商大卒·本會副會長
신협중앙회회장
一金 50만원

徐德圭  58년 商大卒 대구은행장 一金 50만원	延瑛圭  58년 商大卒 한국증권협회장 一金 50만원	李仁子  59년 家政大卒·家政大同窓會長 건국대학교수 一金 50만원	李圭澄  59년 文理大卒·本會理事 국민은행장 一金 50만원	權英子  59년 文理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一金 30만원	許浚  59년 法大卒·冠岳會理事 대우증권회장 一金 50만원	朴秀煥  59년 商大卒·本會理事 LG상사사장 세탁기 1대
禹贊穆  59년 商大卒·本會理事 조흥은행장 一金 50만원	李金器  59년 藥大卒·本會副會長 일동제약회장·제약협회장 一金 50만원	金學鎔  60년 法大卒·本會理事 경남기업(주)사장 一金 50만원	宋彦鍾  60년 法大卒·本會理事 광주광역시장 一金 30만원	金仁煥  60년 法大卒·本會理事 동양나일론(주)사장 一金 30만원	金鍾喆  60년 法大卒 감사원 감사위원 一金 30만원	趙太潐  60년 商大卒·本會理事 라미화장품사장 화장품 20세트
李竣鎔  60년 商大卒·本會副會長 대일산업회장 오토바이 1대	金讚淑  60년 齒大卒·齒大同窓會長 청아치과병원장 一金 50만원	朴成圭  57년 工大卒·本會理事 대우통신회장 무선전화기 5대	徐立圭  61년 工大卒·本會理事 우림콘크리트공업사장 一金 50만원	金京熙  61년 文理大卒·本會理事 지식산업사대표 서적 10권	玄昭煥  61년 文理大卒·本會副會長 연합통신사장 一金 20만원	尹相哲  61년 文理大卒 공연윤리위원회위원장 一金 10만원
孫京植  61년 法大卒·冠岳會理事 제일제당회장 一金 50만원	李壽成  61년 法大卒·本會理事 국무총리 一金 30만원	尹世榮  6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서울방송회장 一金 1백만원	李相得  61년 商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一金 30만원	許洪  61년 商大卒·本會理事 대동은행장 一金 50만원	申世吉  61년 商大卒·本會理事 삼성물산사장 신사복 3벌	卞圭七  62년 法大卒·本會理事 LG상사회장 一金 50만원
鄭址炯  62년 法大卒·本會理事 서울지방법원장 一金 30만원	金光一  62년 法大卒·本會理事 대통령비서실장 一金 30만원	金時衡  62년 法大卒·本會理事 한국산업은행총재 一金 50만원	元喆喜  62년 法大卒 농협중앙회회장 사과주스 3천켤	金演祚  62년 商大卒·本會理事 중앙종합금융사장 一金 50만원	林東昇  62년 商大卒·本會理事 삼성증권사장 一金 50만원	姜敏求  62년 行大院卒·行大院同窓會長 유성개발회장 一金 50만원
趙昌杰  63년 工大卒·本會理事 (주)한샘사장 一金 50만원	鄭淳着  63년 工大卒·本會理事 선경건설사장 一金 50만원	鄭善基  63년 工大卒·本會理事 쌍용제지사장 一金 50만원	俞玄植  63년 工大卒·本會理事 제일모직사장 신사복 티켓 3매	洪性大  63년 文理大卒·冠岳會理事 상산학원이사장 一金 50만원	韓和甲  63년 文理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一金 30만원	金道彦  63년 法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一金 30만원
尹元錫  63년 法大卒·本會理事 대우중공업(주)회장 一金 50만원	玄輝男  63년 法大卒·本會理事 동아생명보험전무이사 一金 50만원	玄明官  63년 法大卒·本會理事 삼성그룹회장비서실장 전자렌지 3대	鄭之兌  63년 法大卒 상업은행장 一金 50만원	金成圭  63년 商大卒·本會理事 (주)경남모직사장 一金 50만원	李洪鎔  63년 商大卒·本會理事 국민신용카드사장 一金 50만원	申熙澈  63년 商大卒·本會理事 금강제화부회장 구두티켓 7매
孫吉丞  63년 商大卒·本會理事 선경경영기획실장 一金 50만원	朴英珠  63년 商大卒·本會理事 이진산업회장 一金 50만원	朴在潤  63년 商大卒·本會理事 통상산업부장관 一金 30만원	陳稔  63년 商大卒 노동부장관 一金 30만원	李喆浩  63년 商大卒 부국증권사장 一金 50만원	沈春錫  63년 商大卒 이원산업회장 一金 50만원	韓亨洙  64년 工大卒·本會理事 제일합섬부회장 비디오테이프 2백개
李典九  64년 農大卒 前뉴욕지부동창회장 一金 1천불	吉昇欽  64년 文理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一金 30만원	朴範珍  64년 文理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一金 30만원	尹美子  64년 美大卒·冠岳會理事 중문민속촌대표 一金 50만원	金榮秀  64년 法大卒·本會理事 문화체육부장관 一金 30만원	金基錫  64년 法大卒·本會理事 법제처장 一金 30만원	孫善奎  64년 法大卒·本會理事 한국감정원장 순목시계 18세트
李鍾學  64년 法大卒·本會理事 한화종합화학사장 一金 50만원	崔秉烈  64년 法大卒·本會副會長 국회의원 一金 50만원	李海揆  64년 法大卒 삼성중공업(조선)사장 一金 50만원	卞柱仙  64년 師大卒·本會副會長 걸스카우트연맹총재 一金 50만원	沈載榮  64년 商大卒·本會理事 롯데기공사장 一金 50만원	金振範  64년 商大卒·本會理事 한의종합금융사장 一金 50만원	尹永錫  64년 商大卒·本會副會長 대우그룹총괄회장 一金 50만원

裴昶模

64년 商大卒
대우증권사장
—금 50만원

姜昌淳

65년 工大卒·冠岳會理事
모교발전기금상임이사
—금 50만원

郭英哲

65년 農大卒·本會理事
(주)동아건설사장
—금 50만원

崔恒

65년 文理大卒·本會理事
서울지검장
—금 30만원

李世馥

65년 法大卒·本會理事
나드리화장품부사장
화장품 20세트

曹海寧

65년 法大卒·本會理事
총무처장관
—금 30만원

金英大

65년 法大卒·本會副會長
대성산업(주)사장
—금 50만원

柳基範

65년 法大卒
대우통신사장
무선전화기쿠폰 5매

金起秀

65년 司大院卒·本會理事
검찰총장
—금 30만원

許京萬

65년 司大院卒·本會理事
전남도지사
—금 30만원

金恒德

65년 商大卒·本會理事
(주)유공부회장
—금 50만원

洪文信

65년 商大卒·本會理事
대한제보협사장
가정용공구 30세트

朴根浚

65년 商大卒·本會理事
대한제당부회장
설탕종합세트 15세트

李大遠

65년 商大卒·本會理事
삼성항공산업부회장
카메라 3대

朴容晟

65년 商大卒·本會副會長
두산그룹부회장
소주 3천5백팩

高忠三

65년 行大院卒·本會理事
대한항공부사장
제주왕복항공권(2인1조) 3매

安秉永

65년 行大院卒
교육부장관
—금 30만원

李正國

66년 工大卒
대림산업사장
—금 50만원

權炆久

66년 法大卒·本會理事
LG전선(주)사장
전자렌지 3대

金仁浩

66년 法大卒·本會理事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금 30만원

金英泰

66년 法大卒·本會理事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
홍삼차 선물세트 12세트

朴英俊

66년 商大卒·冠岳會監事
공인회계사
—금 50만원

沈太平

66년 商大卒·本會理事
충남도지사
—금 30만원

李鳳圭

66년 商大卒
삼미종합특수감사장
—금 50만원

李祥義

66년 藥大卒·本會副會長
국회의원
—금 50만원

池英一

66년 醫大卒·本會理事
신일병원장
—금 50만원

文熹甲

66년 行大院卒·本會理事
대구광역시시장
—금 30만원

李燦河

67년 經大院卒·經大院同窓會長
신한회계법인대표
—금 50만원

韋相敦

67년 工大卒
바로그가구사장
쇼파 티켓 2매

朴泳求

67년 商大卒·本會理事
호텔신라사장
와인 10세트

金基炳

67년 行大院卒·本會副會長
롯데관광회장
—금 1백만원

白南治

68년 法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금 30만원

崔鉛熙

68년 法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금 30만원

韓利憲

68년 商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소주 15BOX, 맥주 5BOX

李錫采

68년 商大卒·本會理事
대통령경제수석
—금 30만원

李尙烈

69년 工大卒·本會理事
미도파부회장
타올 1백장

李潤雨

69년 工大卒·本會理事
삼성전자사장
—금 50만원

姜萬洙

69년 法大卒·本會理事
관세청장
—금 30만원

康奉均

69년 商大卒
정보통신부장관
—금 30만원

金學元

70년 法大卒·本會理事
국회의원
—금 30만원

具本英

70년 商大卒
과기처장관
—금 30만원

金泓殖

71년 經大院卒·本會理事
금복주회장
소주 1천팩

玄在賢

71년 法大卒·本會副會長
동양그룹회장
—금 1백만원, 캐러멜 30BOX

李濟薰

71년 新大院卒·新大院同窓會長
삼성그룹회장비서실부사장
—금 50만원

朴重培

71년 行大院卒·環大院同窓會長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이사장
—금 50만원

洪錫炫

72년 工大卒·本會副會長
중앙일보사장
—금 50만원

金聖晚

72년 工大卒
한국유리공업사장
—금 50만원

李仁濟

72년 法大卒·本會理事
경기도지사
—금 30만원

李大榮

72년 商大卒
금강제화공동대표
구두티켓 7매

崔箕善

73년 法大卒·本會理事
인천광역시시장
—금 30만원

朱鎮吁

74년 文理大卒·冠岳會理事
국회의원
—금 30만원

李喆玉

74년 保大院卒·保大院同窓會長
의료법인 길병원의료원장
—금 50만원

朴柱鐸

74년 商大卒·冠岳會監事
수산그룹회장
—금 50만원

崔炳敏

75년 文理大卒·本會理事
대한필프사장
물티슈 7BOX

文大源

75년 商大卒·本會理事
코리아제록스부회장
—금 50만원

鄭夢準

75년 商大卒·本會副會長
국회의원
자동차 1대

朱炳德

79년 行大院卒·本會理事
충북도지사
—금 30만원

崔元榮

85년 大學院卒·本會副會長
시사저널사회장
—금 50만원

金文洙

94년 經營大卒
국회의원
탁상시계 50개

權寧海

15기 국가정책과정
국가안전기획부 부장
—금 30만원

朴寬用

18기 국가정책과정·ACAD同窓會長
국회의원
—금 50만원

李養鎬

18기 국가정책과정
前국방부장관
—금 30만원

徐廷華

20기 국가정책과정·本會理事
국회의원
—금 30만원

姜昌熙

22기 국가정책과정·本會理事
국회의원
—금 30만원

柳在浩

23기 국가정책과정
조달청장
—금 30만원

金光石

37기 최고경영자과정
대통령경호실장
—금 30만원

崔在昇

38기 국가정책과정
국회의원
—금 30만원看護大學同窓會
—금 30만원藥學大學同窓會
—금 20만원音樂大學同窓會
—금 50만원

金在淳회장 발전기금 1억 출연 鮮于총장 주최 해외동문 만찬서



金회장이 鮮于총장에게 발전기금으로 1억원을 전달했다.

모교 鮮于仲皓총장은 지난 10월 14일 관악캠퍼스 호암교 수회관에서 개교50주년 기념 「해외동문 초청 만찬」을 개최했다.

본회 金在淳회장, 鄭宗澤상임 부회장, 李世震사무총장을 비롯해 모교 보직교수 등 7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李丙俊재미총동창회장이 해외동문을 대표해 鮮于총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어 金在淳회장은 모교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200」에 서

울대인의 참여를 요청하면서 재단법인 관악회 명의로 鮮于총장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

이날 발전기금 1억원 출연은 지난 10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재단법인 관악회 긴급 이사회 심의를 거친 바 있다.

한편 金在淳회장은 이날 동문의 한사람으로서 「캠페인 200」에 1천만원을, 鄭宗澤상임 부회장은 5백만원을, 李世震사무총장은 1백만원을 각각 출연했다.

해외동문들도 한마음 발전기금 모금에 동참



본회(회장 金在淳)는 개교 50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부부 동반으로 모교를 방문한 50여 명의 해외 동문을 초청, 지난 10월 15일 르네상스서울호텔에서 본회 임원진과 함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李世震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본회 임원진과 해외동문의 소개가 있

었다.

이어진 만찬에서 李吉女의대 동창회장은 해외동문을 대표한 盧銘冕동문의 부인에게 기념품을 전달했으며 재미총동창회 李丙俊회장은 재미동문들이 십시일반으로 출연한 2천달러를 모교 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金在淳회장에게 전달했다.

또한 뉴욕지부 회장을 역임한 李典九동문이 1천달러를, 캐

나다 밴쿠버지부(회장 洪淳哲)에서 1천달러(캐나다달러)를 모교 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본회에 전해왔다.

한편 이번 해외동문 방문단의 일원으로 참석한 프랑스지부 申載暢회장은 동문들의 뜻을 모아 이날 모교에 마로니에 4그루를 기증, 버들골에서 기념 식수를 하기도 했다.

해외동문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북미지역: ▲재미총동창회 李丙俊(59년 商大卒)회장, 吳仁錫(62년 法大卒)수석부회장, 金性熙(71년 商大卒)사무총장, 權相禧(85년 社會大卒)총무부장 ▲LA지부 朴炳起(58년 工大卒)회장, 李在權(61년 法大卒)부회장, 李種度(70년 工大卒)재무국장, 尹經敏(59년 法大卒), 玉唯鎮(68년 工大卒), 曹洪準(70년 商大卒)동문 ▲뉴욕지부 崔洙容(60년 商大卒)회장, 李典九(64년 農大卒)前회장, 金炳述(55년 藥大卒)前회장, 盧銘冕(55년 醫大卒)평의원 ▲미네소타지부 朱永暉(58년 農大卒)부회장, 金畢珠(60년 農大卒)동문 ▲시카고지부 李漢洙(53년 師大卒)회장, 鄭秉和(67년 大學院卒), 文炳薰(51년 師大卒)동문 ▲워싱턴DC지부 郭洪(51년 醫大卒), 方恩鎬(45년 京城藥專卒)동문 ▲달라스지부 金鍾元(66년 醫大卒)회장 ▲유타지부 朴鍾秀(64년 工大卒)회장 ▲조지아지부 魚澄善(55년 獸醫大卒)前회장 ▲시애틀지부 李陽椿(56년 工大卒)회장 ○유럽지역: ▲네덜란드지부 林基滿(58년 文理大卒)회장 ▲프랑스지부 申載暢(64년 文理大卒)회장 ○호주지역: ▲멜본지부 金容燮(63년 文理大卒)前회장 ○동남아지부: ▲태국지부 金錫鍵(55년 農大卒)회장 (變)

의대 10회 宋회장 「서울의대동창」에 뽑혀



李純炯의대학장이 宋회장(사진 左)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의대10동기회(회장 宋斗瀨)는 지난 10일 모교 방문행사를 갖고, 신라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사은회를 겸한 「동문의 밤」 행사를 가졌다.

회원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1천만원의 기금을 李純炯학장에게 전달하고, 모교 발전을 위해 써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6회 의대동창의 날」

을 맞은 의대동창회는 이날 동창회 활동에 공로가 큰 회원에게 「서울의대 동창 표창」을 수여했다.

국내 부문에 宋斗瀨(54년卒)

동문, 국외 부문에 申明洙(83년卒)동문이 각각 수상했으며, 연구비는 국내에 李潤松(88년卒)동문, 국외에 金義信(66년卒)동문에게 돌아갔다.

약대동창회

「동창의 날」축제 대성황

藥學大學同窓會(회장 李禮植)는 지난 6일 제15회 「동창의 날」 축제를 개최했다.

1백여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우천으로 인해 모교 노천극장에서 약대 신관 지하 로비로 자리를 옮겨 치러졌다.

朴萬基학장의 격려사에 이어 「藥窓會」의 모리아마 이찌로

회장은 동문들에게 인사한 후, 행사 지원금과 모교 발전 기금을 각각 전달했다.

참석자들은 청군, 홍군으로 나뉘어 미꾸라지 옮겨 담기, 훌라후프 돌리기 등 놀이마당을 펼쳤으며, 장기자랑, 행운권 추첨 등으로 흥겨운 하루를 보냈다.

동정

수상

▲趙炳華(43년) 師大卒·예술원 회장·시인)=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금관문화훈장을 수훈.

▲呂石基(46년) 文理大卒·고려대 명예교수)= 최근 은관문화훈장을 수훈.

▲金達聲(51년) 音大卒·경희대 교수·작곡가)= 최근 보관문화훈장을 수훈.

▲李誠載(51년) 音大卒·안익태 기념재단이사장·音大同窓會長)= 최근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보관문화훈장을 수훈.

▲鄭回甲(51년) 音大卒·모교 명예교수)= 최근 보관문화훈장을 수훈.

▲李雄根(55년) 商大卒·서울시스템대표이사)= 최근 은관문화훈장을 수훈.

▲李御寧(56년) 文理大卒·이화여대 석학교수)= 최근 제24회 일본 국제교류기금 대상을 수상.

▲孫昌熹(56년) 法大卒·한양대 교수)= 최근 남녀고용 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음.

▲權炳奎(57년) 法大卒·지학사 대표이사)= 지난 18일 서울특별시 문화상 시상식에서 출판부문상을 수상.

▲尹鍾琳(57년) 文理大卒·홍익대 교수)= 최근 황희문화상 교

육부문 대상을 수상.

▲沈暲錫(57년) 師大卒·신암초등학교 교장)= 최근 제3회 독서진흥상을 수상.

▲李仁浩(55년) 文理大入·판란드주재 한국대사)= 지난 12일 열린 전국여성대회에서 여협제정 「올해의 여성상」을 수상.

▲吳道光(59년) 文理大卒·공보처 정부간행물제작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문화상 언론부문상을 수상.

▲金鎮昊(61년) 法大卒·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 이사장)= 최근 미라스베거스 시의회로부터 명예시민

상을 수상.

▲盧美惠(66년) 文理大卒·한국여성개발원 부원장)= 최근 남녀고용 평등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음.

▲洪羅喜(67년) 美大卒·호암미술관장)= 최근 프랑스와의 예술문화 교류 및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예술문화훈장 중 1등급인 「교망되르」를 수상.

▲黃炳國(70년) 農大卒·고려대 교수)= 최근 제30회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창립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

▲黃活雄(72년) 法大卒·서울시 경무관)= 최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

▲金泰潤(72년) 行大院卒·특허청 항고심판관)= 최근 고은문화상을 수상.

▲河星容(74년) 文理大卒·스웨덴 스톡홀름한국학교 설립자)= 최근 한글발전 유공자상을 수상.

▲金光浚(85년) 法大卒·서울지검 특수1부 검사)= 최근 신라호텔에서 고은문화상을 수상.

▲朴錫運(86년) 法大卒·노동정책연구소장)= 최근 제4회 인권시민상을 수상.

이동·선임

▲李姬鎬(50년) 師大卒·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이사)= 최근 중국 텐진대 명예교수로 위촉.

▲金俊鎬(55년) 師大卒·前모교교수)= 최근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으로 위촉.

▲南俊祐(56년) 工大卒·국민대 교수)= 최근 국민대 초대 부총장에 취임.

▲慎鏞來(56년) 師大卒·경남교육청 중등교육국장)= 최근 경남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승진.

같은 시기에 대한교원공제회 경남지부장에 연임.

▲李貞默(58년) 工大卒·포항공대 교수)= 최근 국제모형선예인수조(水槽)협의회에서 회장에 피선.

▲李昌燮(58년) 工大卒·前한국원전사장)= 최근 LG에너지(주) 대표이사에 취임.

▲李揆行(58년) 商大卒·삼공선도본원회장·前문화일보 사장)= 최근 중앙일보사 고문으로 위촉.

▲全載燾(58년) 商大卒·대우투자자문사장)= 최근 대한투자자문업협의회 제3대 회장에 피선.

▲李升煥(59년) 法大卒·외무부 국제협력단 감사)= 최근 국제협력단 부총재에 취임.

▲金英洙(61년) 齒大卒·모교교수)= 최근 일본 요코스카에서 개최된 제2회 국제치과보철학회 아세아지부 학회 총회에서 회장에 피선.

▲文昌奎(63년) 藥大卒·모교교수)= 최근 제40대 대한약학회 회장에 피선.

▲洪鍾震(64년) 農大卒·한국농지개발연구소 이사)= 최근 한국농지개발연구소 상임이사에 선임.

▲文東錫(67년) 文理大卒·외무부 의전장)= 최근駐호주 대사로 부임.

▲金建鎬(68년) 工大卒·前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 최근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김.

▲金東信(69년) 文理大卒·합참작전본부장)= 최근 연합사 부사령관에 임명됨.

▲者日圭(69년) 文理大卒·3군 사령관)= 최근 육군 참모총장에 임명됨.

▲李憲錫(70년) 文理大卒·前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 최근 건설교통부 건설지원실장으로 자리를 옮김.

▲任英喆(80년) 法大卒·前서울고법판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법무심의관으로 자리를 옮김.

행사·출간

▲白樂院(49년) 醫大卒·인제대 총장·本會副會長)= 최근 제주대학교와 학술교류협정을 체결.

▲朴俊熙(50년) 師大卒·前이화여대교수)= 최근 북경사회과학원에서 「아세아시대를 맞는 과정에 있어서의 유교문화권이 취해야할 정신적 자세」에 관한 강연회를 가짐.

▲宋庸植(55년) 法大卒·한국지역정책연구원 이사장)= 최근 「한국 문화·체육 정책의 발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회를 가짐.

▲李信子(55년) 美大卒·덕성여



대교수·美大同窓會長)= 오는 30일경 서초구 잠원동 28-10 우덕빌딩 2층에 「우덕갤러리」를 개관할 예정.

▲金元主(57년 法大卒·한국환경법학회 회장)= 오는 4일 르네상스 서울 호텔에서 「세계무역과 환경」을 주제로 한 태평양 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

▲鄭東華(57년 師大卒·인천교대총장·전국교대총장협의회장)= 최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초등교육원 양성에 따른 현안 문제를 논의.

▲李甲烈(57년 藥大卒·한국제일 제약이사장)= 최근 사무실을 이전. (주소: 강남구 역삼동 833-2 성보역삼빌딩 3층. 전화: 3453-3300)

▲李仁子(59년 家政大卒·건국대교수·家政大同窓會長)= 최근 한국복식학회로부터 전임회장의 예우로 화갑기념 논문집을 봉정받음.

▲朴嬢實(60년 醫大卒·박산부인과원장·경기여고동창회장)= 지난 12일 경기여고 개교 88주년을 맞아 동창의 날 기념식을 가짐.

▲柳敏榮(61년 師大卒·예술의전당 이사장)= 최근 러시아 국제고등과학원으로부터 원사학

위를 받음.

▲張基玉(61년 師大卒·신성전문대학장)= 최근 신성전문대 부설 사회교육원 개원 및 입학식을 가짐.

▲李種所(61년 齒大卒·모교교수·대한생리학회장)= 지난 17, 18일 양일간 제주 KAL 호텔에서 제48차 학술대회 및 총회를 가짐.

▲任德淳(62년 師大卒·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충북대교수)= 최근 국내 문화지리학의 개척서였던 「문화지리학」(법문사刊)을 대폭 증보, 개편해 출간.

▲李福男(63년 農大卒·농진청농업경영관실 연구원)= 美농무성 초청으로 국제원예경제학회에 참석해 논문을 발표.

▲徐在萬(63년 文理大卒·한국외국어대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중동연구소장)= 최근 외국어대 시청각교

육센터에서 「Korea and Middle East in Changing World Order」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

▲李正子(63년 文理大卒·전문직여성클럽한국연맹회장)= 지난 11일 서울 YMCA 강당에서 녹색소

비자연대 창립대회를 개최.

▲文光順(64년 工大卒·한국계



면 공학연구소장)= 최근 「석탄회 활용을 위한 국제 워크숍」을 한전과 공동으로 개최한 후, 북경에서 열린 「제1회 한·중 석탄활용워크숍」에 참석해 「석탄의 원천탈황」에 관한 논문을 발표.

▲李燦河(67년 經大院卒·신한회계법인대표·經大院同窓會長)= 지난 7일 모교 「대학발전기금」으로 1천만원 출연.

▲黃斗英(69년 行大院卒·한국새마을금고학회·行大院同窓會常勤副會長)= 지난 15일 근검·절약과 저축 권장을 주도하는 새마을금고운동 학술논총을 발간.

▲李惠柱(73년 美大卒·섬유예술가)=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압구정동 「ICON갤러리」에서 섬유조형전을 개최.

▲韓基龍(74년 經大院卒·더존소프트 대표이사)= 최근 사무실 이전. (주소: 마포구 공덕동 105-200 동아빌딩 2층. 전화: 702-3701)

▲金德年(75년 工大卒·모교교수)= 최근 전자통신기기의 발전상황시찰 및 토의를 위해 이탈리아로 출국.

▲全美映(78년 音大卒·한국교원대학교 교수·피아니스트)= 지난 30일 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첼리스트인 남편 이동우씨와 「소나타 아벤트」를 가짐.

▲李珉柱(80년 美大卒·한국화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청담동 「63갤러리」에서 열번째 개인전을 개최.

▲金玟美(85년 美大卒·금속공예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

지 「모인화랑」에서 첫번째 개인전을 가짐.

(정리=崔恩熙기자)

제7회 「韋庵 張志淵賞」수상 高柄翊·洪思重·李年憲동문



高柄翊



洪思重



李年憲

제7회 「韋庵 張志淵賞」 시상식이 11월 1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학부문 高柄翊(47년 文理大卒·민족문화추진회이사장), 언론부문 洪思重(56년 文理大卒·조선일보 논설고문), 방송부문 李年憲(65년 文理大卒·충주MBC사장·本報論說委員)동문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南惠淑동문 첫 개인전 개최 11월19일~24일 서울갤러리



「노란꽃이 있는 방」, 91×117cm.



여류화가 南惠淑(66년 美大卒)동문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프레스센터 서울갤러리 제2전시실에서 첫 개인전을 갖는다.

LG패션 申弘淳사장의 부인인 南동문은 한국미술협회, 혼유회, 일원회, 국제화우회 등의 그룹전과 한일작품교류전, 한불여류화가회전, 프랑스·독일 순회전 등에 꾸준히 참여해왔다.

南동문은 주로 정물을 소재로 하여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여성 특유의 순수한 미감으로 표현하는데 주력해왔다.

이번 전시회에는 「노란꽃이 있는 방」 등 유화작품 43점과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한 수채화 작품 8점이 선보인다. (熙)



재미총동창회

吳仁錫수석부회장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

柳豪玟초대학장

“현대화된 관악캠퍼스에 큰 감명”



모교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모교를 방문한 해외 동문중 차기 재미총동창회장을 맡게 될 吳仁錫(62년 法大卒) 재미총동창회 수석 부회장을 만나보았다.

— 모교를 방문한 소감은.

『우선 동창회 金在淳회장, 모교 鮮于仲皓총장을 비롯한 동문 여러분의 환대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전에 다녀간 적이 있지만 오랜만에 모교를 찾은 동문들은 상상과 달리 엄청난 규모로 현대화된 관악캠퍼스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개교 기념식을 참관했을 때 지루하지 않고 능률화된 행사 진행에 모두들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 차기 총동창회장으로서 각오는.

『저는 재미총동창회와 각 지부동창회간의 긴밀한 유대강화와 협조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규모의 지부동창회가 하지 않은

동창회보 제작 등을 더욱 열심히 펼쳐 지부가 결성되지 않은 지역에도 전달, 동창의식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 재미동창회를 이끌어갈 복안은.

『미주지역 동문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어 우선 음대, 미대 출신의 유학생 등 새로운 젊은 동문들을 발굴해 동창회 활동에 참여를 유도하고 현재 지부가 결성되지 않은 보스턴, 필라델피아, 오하이오주, 인디애나주 등에 새 지부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또 각계에서 퇴직한 원로동문들을 모아 그들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주지역은 물론 국내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동문들에게 필요한 자문과 상담을 해주는 원로 봉사단을 조직, 운영하고자 합니다』

— 모교 후학 및 동문들에게 한 말씀.

『모교가 세계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훌륭한 교육기관이므로 재학생들이 긍지를 갖고 열심히 노력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험으로는 미주나 유럽에서 비즈니스 경쟁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체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저곳을 다니며 시차를 극복하고 여러 날을 밤새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체력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처음 저는 1녀 2남의 제 자식들로부터 모교 사랑 및 동창의식을 배웠습니다. 미주지역에서는 중·고교는 물론 대학에서도 모교의 발전을 위해서 동창회를 통해 참여해야 한다는 의식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졸업 후 취직해서도 용돈을 절약, 계속적으로 모교를 지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실력 모자라는 학생 졸업 안시켜”

지난 9월 3일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 초대학장에 취임한 柳豪玟(67년 法大卒)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KIDP)원장을 만나보았다.

— 설립 동기와 그 영향은.

『산업디자인의 3요소는 소비자, 기업, 디자이너입니다. 그중 기업과 디자이너의 관계를 말해 「디자이너는 물고기, 기업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고기는 많았으나 물이 적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기업이 인식하여 디자이너의 경쟁력 제고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디자이너의 경쟁력이 없으면 우리나라 산업디자인의 발전은 어렵습니다』

『산업디자인 분야에서 최초로 단설대학원이 출범했다는 것은 그만큼 산업디자인 분야의 국제 경쟁력 제고가 시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산업디자인 대학원은 취약한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엘리트 디자이너 배출에 주력할 것입니다. 이곳을 졸업한 디자이너들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전문회사를 운영할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 설립 당시의 어려움은.

『전문대학원 성공의 3요소는 교수 확보, 시설투자, 교육주체들의 참여입니다. 첫째, 교수확보는 기업지도사업과 산학연계를 통해 해결했습니다. 둘째, 시설투자는 통상산업부와 KIDP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세번째는 관련된 교수의 30% 정도가 대학원 설립을 반대했기에 다소 어려웠습니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들 반대세력은 아직도 본 대학원이 기존 대학원과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 同대학원의 자랑거리는.



『최고 일류의 철저한 전문가(프로)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실력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절대 졸업시키지 않겠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성공률은 그 의사의 의대시절 성적에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철저히 공부하지 않은 디자이너가 제대로 된 상품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대학원의 학생들은 국제 감각을 가지는 동시에 한국적인 디자인의 정형을 창조하는 선구자들이 될 것입니다』

— 입학자격 및 학사일정은.

『10월말, 11월초에 내년도 신입생 모집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미리 뽑은 연수생들은 타대학원과 달리 영어, 수학, 컴퓨터, 공작기계, 정밀묘사, 프리젠테이션 등의 입학시험을 치른 바 있습니다. 내년도 입시요강도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變)

요즘 어느 모임에 가도 「대권논의」가 화제의 주류를 이룬다. 대선후보군에 끼지 못하는 정치인들의 동정은 말할 것도 없고 각 당이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국회활동이나 정책문제 등은 하잘것 없어 보이는 지 입방아에 오르지도 못한다. 이렇게 된다는 지금까지의 우리 정치가 「대권정치」 일변도였던 탓이 크다. 모든 당의 움직임이나 관심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 쏠려 있다.

하루 하루 착실히 국민의 신뢰를 쌓아 그 바탕 위에서 선거에 나서기보다는 몇몇 특정인의 전유물이 되다시피한 대통령 후보의 홍보나 이미지 관리가 모든 것에 우선돼 왔다. 대권획득에 보탬이 된다면 당을 깨고 만들기를 예사로 해왔다. 그러나 일반 국민들도 당명은 모르고 「누구 누구의 당」이라고 해야 알아듣는 판국이다. 말로는 자신보다는 당, 당보다는 국가를 앞세우지만 실체는 逆順이다.

얘기가 이렇게 길어진 것은 지금의 대권논의와 관심이, 또 예비후보들의 움직임이 알맹이가 없이 그야말로 정치적이고 피상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서다. 대통령 선거에 나설 뜻이 있다면 당선된 뒤에 어떤 정치를 펼칠 것이고 각 분야별로 소신이나 정책



나라나무

洪性萬

경향신문 논설주간



「大權 시험」준비

방향 등을 먼저 밝히는게 순서일 것이다. 앞으로 장장 5년간 나라살림을 도맡을 인물이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지 유권자들도 당연히 알아야 한다. 물론 1년여나 남아 있는 선거를 겨냥해 지금부터 그런 본격적인 대결을 벌일 수는 없을 것이고 과열방지를 위해서도 그래선 안된다. 하지만 당사자들은 앞날을 위해 착실한 준비를 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출마가 확실시되는 야권의 두 김씨 진영만 봐도 선거기획단이니 뭐니 해서 소리만 요란하고 선거자체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지 정작 집권한 후의 그림은 그리고 있지 못하다. 여당 쪽을 보면 더 답답해진다. 권력누수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입에 자물쇠를 달고 있으면서도 「9龍」이니 「빅5」니 하는 인사들은 열심히 초청연설에 응하고 있다.

출마의중 자체를 言中有得식으로 표시해야 하는 만큼 정책구상은 비쳐볼 엄두도 내지 못하게 돼있다. 하지만 막상 그런 발언이 허용된다 해도 자신있게 나설 수 있을까. 문제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다 준비조차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통령도 시험을 봐서 뽑아야 한다는 우스개 소리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이 우스개로만 지나쳐 버릴 수도 없게끔 됐다. 선거전에 접어들면 TV토론회나 각종 공청회 등 혹독한 시험과정이 기다리고 있다. 평소 실력을 쌓아놓지 않고서는 벼락치기 준비로 통과하기 어려운 관문이다. 그런 「시험준비」에 1년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니다. 대권후보들은 지금이 머리를 싸매고 공부해야할 시점임을 알아야겠다.

(본보 논설위원)

서울대동문예고함

21세기는 인간자원의 시대다

張萬基(68년 經大院卒) 한국인간개발연구원장



「콘웰 러셀」(Russel H. Conwell)은 미국을 국적으로 한 목사요, 저술가로 유명하다. 그의 대표작 「다이아몬드가 묻혀 있는 땅」(The Acres of Diamond)은 수많은 미국인들에게 개혁의 창조 정신을 일깨워준 책으로서 그를 일약 명 저술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책이다.

진리는 가까운 곳에

「알리 하퍼드」라는 주인공은 대지주로서 광대한 농토와 아름다운 정원, 시내가 흐르는 아름다운 저택, 드넓은 과수원, 그리고 막대한 현금으로 금융업(돈놀이)까지 하는 부자였다.

그런데 어느날 그 지역 유명

한 노승이 찾아와 다이아몬드 이야기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하퍼드는 노승이 말한 다이아몬드 광맥을 찾아 세계에서 제일가는 부자가 되어 세계를 경제적으로 지배하려는 환상과 열망에 빠지게 된다.

마침내 몸은 지칠대로 지치고 전 재산을 팔아 거머쥔 돈마저 탕진한 하퍼드는 자신의 생애마저 비판, 결국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속에 몸을 던져 불귀객이 되고 만다.

그런데 하퍼드에게서 헐값으로 농장과 집을 사들인 사람은 정원과 농토와 강변에서 다이아몬드광을 발견, 큰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다이아몬

드가 묻혀 있는 땅」의 내용이다.

그렇다. 진리란 먼데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다. 하퍼드가 찾았던 다이아몬드 광맥은 그가 이미 소유했던 자기 자신의 것이었다.

21세기는 인간 자원의 시대라고 한다. 무한한 가능성과 부의 원천이 인간에게 숨겨져 있다는 것이다. 인간 자원의 가치를 깊이 깨달아 「다이아몬드 광맥」에 도전하고, 창조적인 노력을 한 국가나 기업은 경제대국이 되고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

인간은 누구나 상상력, 신화, 꿈과 희망, 웃음과 사랑이라는

보화를 간직하고 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신화는 역사보다 강하다. 꿈은 현실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희망은 지난날의 경험을 능가하고 힘을 발휘한다. 웃음은 슬픔을 치료하는 유일한 약이고, 사랑 역시 죽음보다 훨씬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우물안 개구리 탈피

오늘의 한국 현실에서 서울대 동문들이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 것에 자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것에만족해서는 안된다. 우리 동문들은 「우물 안 개구리식」의식

세계에서 잠을 깨야 한다.

IQ(지능지수)의 시대가 EQ(감성지수)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명석한 두뇌도 중요하지만, 창조의 샘-마음에서 발원한 감성-은 더 중요하다. 우리는 최고의 명문 서울대출신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상상력, 신화, 꿈과 희망, 웃음과 사랑이라는 인간 보화를 마음껏 활용하여 우리들의 생활 무대인 세계와 국가가 직면한 도전적 과제들과 위기를 극복하고 밝고 희망찬 21세기를 창조해야 한다.

「살맛나는 충북·힘있는 충북」기치로 21세기 앞장 준비

전국 제1의 물가·노사안정 이뤄 지역경제 활력 되찾아



朱炳德 충북도지사

충북은 예로부터 충효의 전통속에 수려한 자연과 문화 그리고 온후한 인정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 유명하다. 또한 수도권과 인접한 내륙지방의 중핵지역으로서 편리한 교통과 풍부한 수자원, 상부상조하는 도민의 심성이 잘 어우러져 무한한 발전의 가능성을 지닌 곳이다.

솔직담백한 성품과 부지런함 그리고 충청도 특유의 뚝심으로 도정을 이끌고 있는 朱炳德(79년 行大院卒)지사는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인 풍요와 정신적, 도덕적인 건강함이 조화를 이룬 가장 살기좋은 지역사회, 힘있는 충북 건설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민원보상제도」눈길

충북도청은 자율과 책임을 전제로한 지방자치의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도세징수교부금제도 등 국가기관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를 과감히 고쳤다. 또한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를 「도정대화의 날」로 정하고 도민이 도지사와 직접 만나 상담할 수 있는 길을 텄다.

뿐만 아니라 전화 및 팩스를 통해 주민이 의견이나 민원을 접수하면 처리결과를 회신해주는 등 민원 서비스를 한

⑥ 충북도청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층 강화했으며,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과실로 민원인이 시간,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일정책(전화카드로 대체)을 보상해주는 「행정착오 민원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충북은 최근 10여건의 금융사고와 기업부도로 인해 극도의 경제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행정·기술자문관제도와 산업정보종합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응을 펼친 결과 95년도 지역내 총생산 증가율, 지역내 1인당 생산액 증가율 모두 전국 1위라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전국 제1의 물가안정과 노사안정을 이루어 지역경제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았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오송 신도시 건설, 청주국제공항 개항, 중앙·중부내륙고속도로건설,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 등 지역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주요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제명예대사 위촉도

충북은 「충북21세기위원회」라는 민간 정책자문기구를 만들어 충북물산전 개최, 충북1백년 기념사업 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각종 시책을 개발해 지방자치 기반을 확고히 구축했다.

이외에도 국제적이고 실제적인 도정, 미래지향적인 도정을 위해 「국제우호 명예대사제도」를 추진해왔다. 이 제도는



농협 금요시장에서 朱지사가 직접 우리 농산물을 판매했다.

충북출신의 해외동포중 저명인사, 기업인 또는 충북과 연고가 깊은 외국인을 명예대사로 위촉하여 이들로부터 국제협력 및 문화예술교류를 지원받거나 특산물의 홍보 및 수출입에 관한 다양한 조언을 듣는 것이다.

또한 미국 아이다호주, 중국 흑룡강성을 비롯해 프랑스, 브라질 등의 주요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어 행정, 기술, 문화 교류는 물론 상호국제통상 협력을 증진해나가고 있으며 충북명예연구소, 세계화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도립육원공업전문대 설립, 초고속 행정통신망 구축등을 통해 세계화, 정보화, 개방화의 조류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세계에 「내고장 알리기」

충북도청은 산업이 낙후돼 있는 도내 북부지역을 문화, 관광 및 첨단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약 4천억원을 들여 2백만평 규모의 충주과 학산업단지를 건설하고 전자정보, 항공 우주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 「내고장 농산물 팔아주기운동」 「충북 내고향 특산물 특판장」 등 공격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농업·교육계 동문 포진

충북에는 청주시 부시장으로 있는 吳濟世동문을 비롯해 李相奭농촌진흥원장, 吳學泳농산물원장, 朴濟國도의회의원, 朴在鉉교육위원회 의장 등 다수의 동문들이 농업과 교육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72년 모교 법대를 나온 吳濟世청주시 부시장은 내부부장관 비서관, 은양·대천시장 등을 역임한 정통 행정관료로서 과거 중앙부처에서의 오랜 근무경험을 토대로 주요 부처를 수시로 방문, 청주시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해왔다.

지난 4월에는 「청주시민의 날」을 맞아 「공무원 작품 특별전」을 열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등 「활기차고 살맛나는 청주」 건설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충북교육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鄭萬在동문은 59년 모교 농대를 졸업한 후, 30여년간 충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근속 30주년 표창」을 받은 것을 비롯해 「교육부장관 연공상」 등을 수상했다.

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의 이용과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을 50여편이 넘게 발표할 정도로 평생을 한국식품공학 발전에 기여해온 鄭동문은 작년 충북교육위원회 위원을 겸임하면서부터 학문발 전뿐만 아니라 교육개혁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왔다.

선비와 예향의 고장

충북은 선비의 고장, 예향의 고장답게 유구한 문화전통을 바탕으로 충북예술제, 시군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도민의 지혜와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정직, 친절, 청결」이라는 기치 아래 도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충북의 상징물과 문화유적 관광지를 국내외에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다.

도정 1백주년을 맞은 충북 도민들은 충청도 특유의 배짱과 우직함으로 「살맛나는 충북, 힘있는 충북」 건설을 조금씩 이루어 나가며 다가오는 21세기를 알차게 준비하고 있다. (志)

〈충청북도 동문 현황〉

吳濟世	청주시부시장	72년 法大卒
朴在鉉	충북도敎委會長	53년 農大卒
鄭萬在	충북도敎育위원	59년 農大卒
吳學泳	농산물원장	61년 農大卒
朴濟國	충북도의회의원	63년 師大卒
李相奭	농촌진흥원장	64년 農大卒
朴洪圭	중앙공무원敎育원	84년 行大院卒



청원군 오창면 딸기농장을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하는 朱지사.

제6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한국 민족화단의 선각자



張 勃

46년 모교 예술대학 미술학부를 설립하고 49년 초대 미술 학부장 및 미술대학장을 역임한 雨石 張 勃선생은 화가로서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한국화단의 거목이자 선구자이다.

뉴욕 내셔널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수학하고 컬럼비아대 미술과를 졸업한 張선생은 예술원 미술공로상, 대한민국 금관 문화훈장, 제1회 카톨릭미술대상을 수상했다.

張선생은 이른바 문화회유정책으로 일제가 급조한 조선 미술전시회를 거부하고 21년부터 민족 미술가들에 의해 운영되는 서화협회전에 참여, 민족미술의 중흥을 주창했다. 특

히, 46년에 대한민국 미술전람회를 창설해 운영위원과 심사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한국현대미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모교에서 미대교수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세계미술사, 서양미술사 등의 이론서를 펴내는 한편 예술가다운 분방함과 학자적인 치밀함으로 미술대학 화풍정립에 심혈을 기울여 현재 한국화단의 중진과 원로로 활동중인 많은 제자를 양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5·16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미국으로 건너간 張선생은 작품활동에 전념, 직관적인 비정형의 조형미를 탐색하며 우주적인 발생론적 기원을 연상시키는 추상세계를 펼쳐왔다.

지난 15일 열린 개교50주년 기념식에서 5명의 동문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그 공로를 치하하는 뜻에서 간략한 공적과 프로필을 소개한다.



좌로부터 韓相麒, 韓萬年, 張 勃씨, 장남, 吳昌泳, 宋永煜동문.

국내 출판업계의 거목



韓萬年

韓萬年(49년 文理大卒·도서출판 일조각 사장)동문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 사회의 격변속에서도 남들이 꺼리는 학술서적 특히, 한국학 관련 전문도서와 학술논문집의 간행에 주력해 출판을 통한 한국학의 개척과 정립에 기여했다.

한국사 신문, 조선한자음연구, 국어학자료선집, 古語辭典 등 한국학 관련 도서만 8백60여종을 출간한 韓동문은 독서인구의 확대는 물론 우리의 전반적인 문화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계간 「창작과 비평」 「문화와 지성」의 창간을 후원했으며, 전통문화 유산과의 단절을 강요했던 정부의 한글전용정책에 반대해 「어문연구」의 간행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

80년대에 들어서자 우리 역사에 대한 시민들의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는 신념에서 「한국사시민강좌」를 창간, 학계와 일반인들의 가교역할을 해왔으며, 대한출판문화협회를 대표해 국제출판협회 부회장으로 활약, 출판계의 국제화에 기여했다.

특히 한국사와 한국문화의 해외소개는 물론 해외에서의 한국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 한국사 신문, 한국상고사의 쟁점, 한국개회사연구 등을 영어와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으로 출간,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이해와 연구를 돕는데 크게 공헌했다.

서울시 문화상,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화관문화훈장, 인촌상을 수상한 韓동문은 「一業一生」이라는 자서전의 제목처럼 삶과 일에 대해 한결같고 꾸준한 자세를 보여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됐다.

평생을 동물연구에 바쳐



吳昌泳

吳昌泳(53년 獸醫大卒·서울대공원 연구실 연구원)동문은 40여년을 동물 연구 및 동물원 운영을 위해 헌신해왔다.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창경원(현 창경궁)에 투신해 당시의 어려웠던 경제 사정속에서도 재계, 독지가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동·식물원을 재건, 전후의 삭막했던 민심을 위무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77년에는 서울대공원 건설자문위원으로 기본 계획 및 설계를 주도해 국제적 수준의 동물원을 마련하는데 기여했으며 15개의 동물원과 수족관을 건설하는데도 주도적 역할을 해 우리 사회의 문화적 수준을 고양하고 자연과 사회의 조화로운 삶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했다.

吳동문은 전국동물원 수족관원장회의를 창립하고 한국임상수의학회 학술위원, 국제자연보존연맹 종 보존위원회 사육·종식분과위원 등을 맡아 국내 동물원 발전과 후진양성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특히 야생동물에 관한 17권의 저서와 22편의 전집, 6책의 감수도서를 펴내는 등 퇴임 후에도 각종 강연 및 저작활동을 하며, 동물사랑을 통한 환경보존 의식의 고취 및 국민정서 순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현재 문화재 위원,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는 吳동문은 최근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아프리카의 영웅」추앙 받아



韓相麒

韓相麒(57년 農大卒·국제열대농업연구소장)동문은 미국 미시간주립대학에서 식물유전육종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61년부터 71년까지 모교에 재직하면서 작물학 및 생물통계학의 연구와 후학양성을 위해 진력했다.

71년부터 20여년간 기아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나이지리아에 설립된 국제열대농업연구소(ITA)에서 작물육종연구원 및 소장보로 헌신해 「아프리카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韓동문은 구근작물인 카사바, 암, 고구마 등의 품종개량과 보급에 전념해 전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식량문제의 해결과 농민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함으로써 두

터운 인간애로 인류복지와 평화에 크게 공헌했다.

그동안 1백60여편의 독창적이고 심도있는 학술논문을 발표했는데 특히, 모교에 재직하는 동안 집필한 「과화도를 위한 통계학」은 우리나라 농학실험연구에 있어서 통계적 이론과 원리를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농업기술개발의 과학화에 선구적 역할을 했다.

국제원예학회(ISHS)최고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세계식량기구(FAO)자문위원, 하이드러개발주식회사 사장 등을 맡아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는 韓동문은 영국 기네스과학공로상, 대한민국 대통령 표창, 영국 왕실 생물학술원 펠로우상, 벨기에 보드윈왕상, 미국 작물학회 펠로우상 등을 수상, 우리나라의 명예를 드높였다.

지체장애 딛고 변호사로 맹활약



宋永煜

宋永煜(61년 法大卒·변호사)동문은 모교 법과대학 3학년 재학중 소아마비를 앓아 양 다리가 마비된 1급 지체장애인이자. 이러한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宋동문은 61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 30여년간 금융 및 국제무역 전문 변호사로 활약해왔다.

바쁜 일정속에서도 宋동문은 장애인과 관련된 각종 소송에 적극 나서 법적, 제도적으로 장애인을 돕는 한편, 장애인의 권리와 복지증진을 위해 국내외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펼쳐 장애인들은 물론 일반인들의 귀감이 되어 왔다.

지난 65년 뜻을 같이하는 소아마비 관련 전문 종사자들과 함께 「한국소아마비협회」와 그 이용시설인 「정립회관」을 설립해 한국의 대표적인 장애인 기관 및 시설로 자리매김했으며, 이것들은 모두 각종 사회적 차별과 냉대를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운동의 메카」가 되었다.

81년에는 국제장애인연맹(DPI)의 한국대표이자 부의장으로 선임되어 장애인에 대한 국가 정책에 광복할만한 변화를 이끌어냈으며, 韓·中·日간의 다자간 장애인 협의 기구를 창설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는데 일조했다.

宋동문은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국민포장, UN장애인 10년 공로상, 백로상, 제7회 카톨릭언론문화상 언론대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장애인복지신문 이사장,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위원 등을 맡고 있다. (志)

모교소식

개교 50주년 기념식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5명 선정 순국동문 등 23명 명예졸업장 전달



金在淳회장이 개교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모교 개교 50주년 기념식이 지난 15일 오전 10시 관악캠퍼스 문화관 대강당에서 金在淳 회장, 鮮于仲皓총장, 李壽成국무총리, 安秉永교육부장관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40년동안 모교에 재직해온 가정대 林元子교수 등 1백75명에게 근속공

로 및 우수공무원 표창이 수여됐으며 재학중 6·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산화한 故 權錫洪씨 등 23명에게 명예졸업증서가 전달됐다.

이밖에 제6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宋永煜(61년 法大卒·변호사), 吳昌泳(53년 獸醫大卒·서울대공원 동물연구

원), 張 勃(초대 미대학장), 韓萬年(49년 文理大卒·일조각대표), 韓相麒(57년 農大卒·국제열대구근작물학회 회장) 등 5명이 선정됐다. <프로필 15면 게재>

鮮于仲皓총장의 기념사에 이어 金泳三대통령은 安秉永교육부장관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세계화, 정보화, 문명화의 전환기에 새로운 위상을 정립, 세계의 대학이 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李壽成국무총리는 「남북분단의 아픔과 무제한의 세계 경쟁속에서 어떤 시련도 극복해 민족의 영예를 찾아야 할 크나큰 소명이 서울대에 있다」고 역설했다.

金在淳회장의 축사에 이어 개교 50주년 기념 축전서곡 연주가 있었으며 鮮于총장, 학생대표의 축하 서명이 있었다.



참석자들이 趙伯顯초대학장의 흉상을 제막했다.

농업생명과학대학

개교 90주년 기념행사 개최

농업생명과학대학(학장 高學均)은 지난 12일 수원캠퍼스에

서 개교 9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鮮于仲皓총장, 姜雲太농림부장관, 趙在衍농진청장을 비롯해 모교 원로교수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대학발전 및 학술부문의 유공자인 沈鍾燮 前 농대동창회장, 尹大燮 성보실업부회장, 韓仁圭 서울대교수, 宋 必淳 美 Nebraska주립대교수에 대한 포상이 있었으며 원로동문인 李春寧 모교 명예교수의 회고사가 있었다.

한편 본관에서는 미대 崔仁壽교수가 제작한 華農 趙伯顯 초대학장의 흉상 제막식이 있었으며 수원캠퍼스 곳곳에서 수원시립교향악단(지휘 金 南 새) 초청공연, 李秀滿동문의 사회로 진행된 상록인 한마당 축제, 수원농학90년 사진전, 전시회 등이 펼쳐졌다.

「서울대와 한국미술」 초대전



14일 열린 초대전 개막식.(좌로부터 네번째 金在淳회장)

모교는 10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서울대학교 현대미술관 건립 원년을 맞아 50주년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와 한국 미술」 초대전을 박물관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金世中, 朴世元, 白文基동문 등 50년대에 졸업했거나 재학했던 동문들 가운데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미술인 66명이 초대됐다. <雙>

「서울대 50년史」출간 모교 풍속도 변천 답아

모교 반세기의 풍속도를 그린 「서울대 50년史」가 개교 50주년을 기념해 출간됐다.

이 책은 60년대까지의 동승 동시절 대학문화를 「거지문화」라고 표현했으며, 70년대의 캠퍼스 화제는 「미팅」이라고 소개하고 75년 2월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후에는 현실에 대한 적극적인 투쟁으로 유신철폐운동이 시작됐으며, 「서울의 봄」으로 시작된 80년대는 「운동권문화」시대, 90년대는 신세대 학생들이 대거 등장, 이념보다는 공부를 중시하는 「고시문화」가 더욱 두드러졌다고 소개했다.

金在淳회장 기념 축사 <요지>

청명한 가을날 관악캠퍼스에서 개교 50주년을 맞는 기쁨과 감회가 새삼스럽습니다. 몇일 전 대학신문 편집실에서 본인에게 원고 청탁서 한 장을 보내왔었습니다. 서울대총동창회장으로서 개교 50주년을 바라보는 감회가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써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탁서가 나에게 전해지던 시간과 전후해서, 금년도(199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폴란드의 여류시인 「비스와바 심보르스카」(73세)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심보르스카의 시 「우리 선조들의 짧은 인생」에 다음과 같은 시귀가 있지요. 「...사는 동안 무엇인가 해보려고 한다면 서둘러야 했다. 해가 지기 전에 첫눈이 내리기 전에...아버지의 눈 아래에서 애들이 자란다. 할아버지의 눈동자에서 손자가 태어난다. 그런데 그들은 나이를 세지 않았다...악이 승리할 때 선은 숨는다. 선이 나타날 때는 악은 숨어서 기다린다. 어느 것도 다른 것을 억압할 수는 없다...그러기에 기쁨이 있더라도 이면에는 불안이 있고 절망 속에서도 항상 조용한 희망은 있다. 삶은 길다고 하지만 언제나 짧은 것이다. 새로이 무엇인가 하기에는 너무 짧다...」

이렇게 시귀를 읊어가노라니 새삼 느낌이 왔습니다. 아! 금년이 모교가 생긴지 50년인가! 내가 몇몇 친구들과 함께 가람 이병기 선생님을 찾아가 교가 작사를 부탁한 것이 50년이 넘었던 말인가. 「...이 겨레와 이 나라의 크나큰 보람, 뛰어난 인재들이 다 모여들어 더욱 더욱 융성하는 서울대학교, 은수리에 빛을 내는 서울대학교」

정녕 세월은 빨리 흘러갑니다. 인생은 짧은 것이 아니라 짧게 느껴지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 철학자도 있었지요. 앞으로 50년, 그러니까 개교 100년이 될 때면 서울대는 어떤 학교가 될 것이고, 모교 출신 동문들은 어떤 사람 - 어떤 인품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인가, 동문들이 주도하고 있는 조국은 어떤 모양새의 나라가 될 것인가, 자문자답해 봅니다.

「모교의 발전이 조국의 발전」이란 것이 우리 동창회가 내건 기치입니다. 모교가 배출한 인재들이 과연 조국 앞에 응분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모교의 발전을 위해 얼마만한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일까?

모교의 창학정신을 언제나 상기합시다. 진리는 나의 빛- VERITAS LUX MEA- 창학정신은 우리들을 한데 묶어 줍니다. 조국 앞에 모교 앞에 책임을 지는 선비의 체통을 이어가는 동문들, 희망을 갖고, 서로 채찍질하며, 서로 도우며 걸어갑시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장 金在淳

鮮于仲皓총장 기념사 <요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우리 자세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토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간에 이룩한 성과를 바탕으로, 개교 50주년을 맞는 금년을 再開校 元年으로 삼으려는 굳은 의지로 우리 대학의 난제들을 해결하고, 진리의 빛으로서, 국민정신의 원류(源流)이자 항도(嚮導)로서, 인류문화 향상의 선도자로서 우리 서울대학의 소임을 다하는데 정진합시다.

우리는 새로운 문명의 모습을 결정짓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해야만 하는 중요한 시기에 서있습니다. 이같은 전환기에서 개교 50주년을 맞은 서울대학교는 창조적이고 자주적인 학문연구와 교육을 통해 세계속에서 새로운 문명창조의 주도적 역할을 다하고자 우리의 의지를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첫째, 서울대학교는 도덕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고,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육을 실현한다.

둘째, 서울대학교는 「학문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서 21세기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한다.

셋째, 서울대학교는 「민족의 대학」으로서 우리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세계 문화를 선도한다.

저는 앞으로 50년 후 우리 서울대학이 개교 100주년을 맞이하는 때에는 21세기 세계사의 중심지가 될 아시아권에서 명실상부한 「학문의 전당」으로서 겨레와 함께, 그리고 세계 인류와 함께 하는 대학이 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뜻을 모아, 서울대학교가 「학문의 대학」 「민족의 대학」 「세계의 대학」으로 전진하는 대장정에 적극 참여합시다.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겨레와 함께 미래로!

서울대학교 총장 鮮于仲皓



10월호를 읽고

등산대회 봄·가을 열어 참여 기회 넓혀주기



각 분야의 전문가나 대학교수들이 새로 출간한 저서와 논문을 좀더 많이 소개해주었으면 좋겠다.

더불어 그 책이나 논문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도 같이 소개해주었으면 한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총동창회 주최 등산대회는 이제 명실공히 서울대인의 한마당으로 자리잡은 것 같다. 그런데 1년에 한번뿐이어서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동문은 다음 해를 기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봄, 가을로 등산대회를 열어 좀더 많은 동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李福男(63년 農大卒)농업진흥청 농업연구원

동정란 과감히 확대해 충실한 안테나 되어야



독립 대학원으로서의 간판이 날아가버린 게으른 동문에 게까지 늘 챙겨주는 자상함에 항상 감사

하고 있다. 못난 자식, 돌아온 탕자에게 사랑을 더한 성서의 구절을 생각해볼 때도 있다.

편집에 동문들의 책임있는 참여가 눈에 띈다. 재벌회사들의 사보가 홍보지로 변하고 호화판으로 칼라화한 것들 속에서 담백하게 오래 기억될 흑백회보에 더욱 애정이 느껴진다.

사회진출을 앞둔 관심있는 재학생들에게 좀더 폭넓게 읽혀질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아울러 모교에 있는 자식이나 동생뻘 되는 젊음의 약동도 컴팩트하게 추려보려면 어떻게 생각해 본다.

과감한 동정란 확대를 서로의 소식을 중계하는 충실한 안테나가 되어 주길...

金基道(72년 新大院卒)前국회의원



무소속의 辨

1961년에 대학을 졸업했으나 올해로 졸업 35주년이 된다. 우리 사회가 1960년대 이후 30년간 급격한 변화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우리 세대의 졸업생은 한국 사회의 변동과 때를 같이 한 사람들이다.

돌이켜보면 줄곧 가르치는 일을 해오면서 그리고 가정과 직장을 양립시키는 직장여성의 입장에서 「나」라는 사람은 무소속의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았다. 정부와 학생 사이, 학생과 학교 사이에서...

가정·직장에서 반쪽짜리

학생들에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니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해야 한다」고 설득시키려면, 어용교수라는 라벨까지는 안 붙인다 해도 「교수님은 진정한 사랑

을 모르신다」며 완곡한 표현으로 나를 부정하곤 했다. 한편 학교측이나 정부에 학생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서면 국가관이나 애교심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곤 한다.

직장과 가정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엄격한 시부모님은 무엇 때문에 그리도 바쁘냐고 호령하시고, 직장에서는 어딘지 충실치 못한 직장인이 되고 마니 이것 또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반쪽짜리, 어디서나 무소속의 소외감을 면할 수 없었다.

요즈음 학부제 문제로 학문의 통합과 정에서도 마찬가지, 무소속의 심정은 계속 떨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느낌이다. 왜 이다지도 소용돌이 치는 변화속에서 살아야만 하는지...

그 변화속에서도 서로가 합의점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인지? 그럴 때마다 하



劉永珠(61년 家政大卒)
경희대 가정대학장

늘을 우러러 독백처럼 중얼거리곤 한다. 「누구에게 속하지 않아도 좋다. 누구편에 서지 않아도 좋다. 나 하나만이라도 좋다. 정의에 살고 원칙을 따를 것이다」라고...

결국 무소속은 소속(?)

그렇게 반복하면서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속의 반려자를 갖게 되었다. 그것은 절대자와의 대화이다. 나는 아직 어느 종교에도 소속되지 않은 무종교인이거나 절대자가 있다고 굳게 믿는 유신론자가 되고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절대자의 이름을 밝힐 것이지만.

나의 오랜동안의 무소속의 소외감을 강한 소속감을 갖게 한 셈이다. 결국 무소속은 소속이다.

여성의원에 격려를...

지난 8월초부터 확연히 머릿속이 맑다. 6·27선거 6개월쯤 전부터 견잡을 수 없이 힘들었다. 여성의 정치진출이라는 당위에 당연히 찬성하지만 후보가 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웠다.

당선 후에도 시정파악에 골몰하고 현실정치라는 것을 파악하느라 잠시 설움이 없었다. 피곤함은 물론이고, 건강증이 심하고 초조하며 시력이 나빠지는 것까지는 견디겠는데 우울해지면 정말 어쩔줄을 모르겠었다.

약수할때도 손간지럽혀

강년기만 의심하며 「그동안 스트레스 없이 편안하 살았었구나」하는 생각뿐이던 차에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한 신문 기사를 보고서야 피로때문이라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이 이렇게 피곤하게 했을까. 남성 시의원들은 피곤해하지 않는데 말이다. 초등학교 4학년 이후로 여성속에서만 활동한 것이다. 남성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우선 남자들은 여성을 동료로 쳐주지 않으려 들거나 아예 남자로 취급하려 한다. 마구 음담패설을 하여 낮뜨겁게 만들기 일쑤다. 악수를 할 때도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간지럽히거나 손에 힘이 하나도 없이 내맡겨버리는 식이지 남자가 끼리 할 때와 같지 않다.

남성중심적 사고 바꿔야

하나같이 두뇌 명석하고 판단력이 높은 분들인데 어째 여성관은 노소없이 똑같이 남성중심적인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집에 와서도 쉴 수 없었다. 집안



李古拉(74년 看護大卒)
서울시의회 의원

일도 해야하고 사무실이 없으니 집전와 팩시, 호출기가 계속 울려댄다.

이런 여성의원이 힘들 것이라는 배려는 커녕 여성의원의 남편이 밥상도 제대로 못받으면서도 놀려지낼거라는 선입견을 은근히 내보이며 걱정을 하니, 여성의 진출이 뒤떨어진 정치에 앞서 참여한 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북유럽처럼 여성의원이 과반수가 넘는 때가 빨리 도래하도록 어려운 처지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의원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말아주길 여러 동문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高分子와 생활문화



沈貞燮 명예교수

섬유, 플라스틱, 고무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高分子 또는 고분자과학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고 반문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자는 필수 또는 준필수품으로 우리 생활과 밀착돼 있지만 후자는 이들에 관한 학문을 뜻하므로 그렇지 못하니 쉽게 수긍이 간다.

나일론, 폴리에스터 섬유와 같은 합성섬유로 만든 衣料, 차량의 타이어, 전기부품, 전화, TV, 커튼, 비닐 포장지는 물론 생명현상의 근간인 유전과 대사반응에서 정보의 보존과 흐름을 담당하는 핵산과 단백질, 항공우주 산업에서의 첨단 신소재 부품 등은 한결같이 그 분자량이 수십만 내지는 수백만에 이르는 高分子량 내지 초고분자량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학문을 「고분자과학」이라고 부른다.

활용 범위 무한대

고분자과학이 학문으로서 확고한 자리매김을 한지도 어언 70년이 된다. 오랜 역사를 지닌 소위 저분자화학 영역과 비교해볼 때

고분자학은 혈기왕성한 청년이라 할 수 있어 그 전도는 실로 양양하다. 특히 이러한 혈기는 고분자 기초과학의 발전은 물론 응용영역에서 결실을 맺어 신소재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일상생활에서 산업소재에 이르기까지 그 이용 범위는 확대일로이다. 이것은 다시 첨단 신소재 전개로 이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①자원에너지 ②초구조 고성능 ③전자정보 ④생명과학과 관련된 영역이 초점이 될 것이며 당연히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 충실이 요구될 것이다.

53년 첫 강좌 생겨

한국고분자과학 및 기술의 뿌리는 역시 53년 모교 화공과에서 고분자화학과 플라스틱공학 강좌가 개설되고 그 연구가 활발해진 후부터라 하겠다. 고분자 동학들의 여망으로 76년에 창립된 한국고분자학회 발전은 거듭해 금년 춘계 정총 및 연구발표회 때의 논문 발표수가 2백71편, 회원은 약 3천명, 연 예산액이 약 2억5천만원에 이르러 지난 77년의 약 20배로 늘어났다.

한편 고분자과학 및 기술의 국제교류가 매우 활발해졌음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한일, 한독, 한중 공동 심포지엄 외에 금년에 우리 고분자학회와 국제순수 및 응용화학연합(IUPAC)이 공동 주관하여 제36차 고분자 국제심포지엄을 지난 8월 한·미·일을 위시한 42개국의 1천5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매우 성황리에 개최해 한국고분자학의 참모습을 다시 한번 전세계에 과시했다.

모임 探訪

미대 八二會

미술대학 동문들 전시모임의 효시

미술대학 1949년 입학동기로 구성된 「八二會」는 대학 2학년때 6·25를 겪었다.

회원들은 전시연합대학이 부산에 마련한, 송도 해변가의 큰 요리집 다다미 방에 모여앉아 수업을 했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전쟁 후 대학에 복학할 수 있었던 동기들은 입학 당시의 절반인 20명 안팎, 재회에 대한 이들의 감회는 남다를 수 밖에 없었다. 또한 金興洙교수 등과 함께 했던 재학시절의 수업은 전쟁 후 빈곤의 늪을 헤매면서도 동대문 일대를 뒤져 한 것이나마 미술 재료를 구하고, 창작에 몰두하게 한 힘이 됐다.

파리와 82 발음 따 이름지어

이들은 재학시 모임을 만들고, 회원들이 동경했던 미술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와 당시 통용되던 입학년도 단기 4282년의 끝 두자리 음이 유사한데서 「八二會」로 이름 지었다.

졸업 후에도 八二會는 매년 전시회를 함께 개최하는 것으로 발전, 1971년 제1회 전시회를 명동화랑에서 개최한 이래 81년까지 매년 전시회를 갖는 열성을 보였다. 이러한 열성은 회원들의 나이 예순이 넘은 후에도 계속돼 89년 롯데미술관에서 전시회까지 19년 동안 모두 15차례의 전시회를 갖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회원들의 유례없이 활발한 활동은 모교 미

대 후배들 사이에 화제가 돼 이를 본뜬 모임들이 속속 생겨나기도 했다. 당연히 미대 동문들 사이에 八二會의 명성은 높다.

19년동안 전시회 무려 15차례

50년 지기인 이들의 사귀는 정은 가족간의 친분을 저절로 싹트게 해 서로 경조사를 챙기며 한가족 같은 만남을 갖고, 전시활동 외에도 부곡과 수안보 등지로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다.

초대회장을 맡았고 모교 미대학장을 지낸 權純亨동문을 비롯, 「정원 여류미술상」을 수상했던 現 회장 沈竹子동문이 회원이다. 그리고 이화여대 미대학장을 역임한 姜泰成동문은 「서울시문화상」과 「김세중 조각상」을 받았고, 동방연서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金瑞鳳동문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미대동창회장을 지냈으며 대통령 문화예술상을 수상했다. 독일에 거주하며 스테인드글라스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南路祐동문 등 16명의 회원들 모두 현재 미술계의 원로이지만 젊은 미술인들 못지 않은 활동을 하고 있다.

오는 99년 입학 50주년을 기념해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라는 이들은 일흔의 나이에 갖는 전시회에 대한 설렘과 기대로 이미 스무살 신입생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가있었다. (熙)



田雷鎮동문의 예술원상 시상식에서.(우로부터 세번째 沈竹子회장)

문화
단신

新刊

■배달민족혼
—金守經 著

한 국 문 인 협회, 한국시인협회, 국제펜클럽 회원인 金守經(63년 齒大卒·모교교수)동문의 제15시

집이 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5부로 구성, 1백여편의 시속에 1900년대 우리의 선비정신과 그 시대의 풍경, 백두산 천지, 연변 등지에서 조국을 그리던 선열들의 혼을 담아 놓았다. (미래문화사刊·값3,500원)

■현대 정신분석비평
—朴贊扶 著

정신분석학과 정신분석문학비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요즘 경복대 영문과 교수로 재

직중인 朴贊扶(70년 文理大卒)동문이 본격적인 정신분석비평이론서를 발간, 학계의 눈길을 끌고 있다.

朴동문은 이 책속에 정신분석학 뿐만 아니라 현대의 해체론, 포스트모더니즘 등 현대비평이론의 중요한 부분도 함께 담았다. (민음사刊·값13,000원)

公演

■鄭福珠독창회

—11월20일 세종문화회관

서구 예술가곡에 있어 품격 높은 연주와 깊이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고 있는 소프라노 鄭福珠(70년 音大卒·이화여대교수)동문이 독창회를 연다.

이날 공연에서는 모차르트, 멘델스존, 브람스, 볼프 등의 작품을 연주하며, 피아노에 韓英愛(52년 音大入)동문, 클라리넷에 金賢坤(78년 音大卒)동문이 협연한다.

■黃秉冀가야금연주회
—11월17일 예술의 전당

전통의 현대적 재창조로 한국 전통음악을 세계속에 자리매김한 黃秉冀(59년 法大卒·이화여대교수)동문이 회갑을 맞아 35년동안의 창작, 연주활동을 결산하는 무대를 갖는다.

展示

■한국여류화가회전
—11월 30일~12월 6일
제주도 문화진흥원

한국여류화가회(회장 成耆點·62년 美大卒)는 제24회 정기회원전을 서울(11월 1일~6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제주에서 개최한다.

(정리=安興燮기자)



文宇哲 중앙대교수

새로운 유전자 암치료법 개발

히포크라테스 정신의 참 실천자



『아직은 미완성 단계이므로 각계의 지나친 기대는 부담스럽습니다. 최선을 다해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니 장기적인 결과를 지켜봐 주십시오』

의술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치료법을 연구하는 文宇哲(80년 醫大卒·중앙대교수)동문과 같은 젊은 의사들에게선 참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느낄 수 있다.

항암유전자 p53

『인체의 정상세포에는 항암유전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p53유전자입니다. 전체 인체암의 약 절반이 p53유전자의 이상으로 발생하죠』

p53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암세포에 정상 p53유전자를 투여해 암세포의 고사(일종

의 유전적 지령에 의한 자살)를 유발, 암혈관의 형성을 차단함으로써 암을 파괴하는 방법이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법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방법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정상유전자의 손상과 암 유발의 위험이 따르며, 정제가 어려워 인체암의 임상에 시도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文동문은 p53유전자를 특수지단백(신형의 리포솜)과 결합, 환자의 혈관내로 투여해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이 방법은 바이러스를 이용하지 않아 정제가 용이하다고 한다.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나 치료효과는 희망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

니다』

임상실험 문의 쇄도

기존의 항암요법으로 실패해 속수무책으로 말기암 환자들을 잃었던 쓰라린 경험에 이같은 연구의 동기가 됐다는 文동문. 암 정복을 향한 열정은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시약 등을 개인부담하며, 시장에서 산 8천원짜리 바지 두 벌로 일년을 지내고 하루 용돈 2천원으로 생활해오면서도 일요일에도 밤11시까지 연구실 불을 밝힌 치열한 연구정신으로 발현됐다.

연구 성과가 알려진 후, 임상실험 대상이 되겠다는 문의가 쇄도해 밤11시까지 연구실에서 추가로 상담해야 했다. 이런 文동문에게 부친 文孝重(52년 醫大卒·한국전립선재단이사장)동문과 산부인과 전문의인 부인 등 가족들의 지원과 협조도 컸다. 文동문 집안은 의사가 17명이나 되는 의사집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연구비 수혜하에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文동문은 선이 악을 이기듯 암은 언젠가 선한 인간에 의해 정복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연구에 정진하고 있다. (熙)

“회비를 납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문여러분께서 내주신 회비는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 및 미술전, 음악회, 회보 발간 등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교와 동창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理事 : 9월 11일 ~ 10월 16일 · 一般 : 9월 1일 ~ 10월 12일〉

회 장 단

▲부회장 卞柱仙=1백만원

이 사

◇人文大學

▲김중겸 77 일본대사관협력관

◇社會科學大學

▲김무기 78 동부증권부사장

▲장원석 78 제주대학교수

◇家政大學

▲김명자 69 숙명여대학교수

▲인영희 69 명일여중교장

◇看護大學

▲김화중 67 서울대학교수

◇經營大學

▲윤재봉 77 삼일회계법인이사

◇工科大學

▲권기안 57 강원산업상임고문

▲권병우 56 덕성여고교사

▲김광교 65 한국DNS대표

▲김광렬 64 중원전기부사장

▲김국진 70 태평실업사장

▲김도심 58 신아화학공업고문

▲김방태 64 (주)대우전무이사

▲김병태 61 현대일주택대표

▲김보웅 68 쌍용양회전무이사

▲김석진 52 원자력연구소

▲김세근 54 전서울기계공고

▲김연식 60 (주)유공부사장

▲김유도 62 천일하이텍사장

▲김윤기 58 진시스템(주)회장

▲김인기 63 우보기술단회장

▲김재명 70 선경건설상무이사

▲김중해 61 한국크리버사장

▲김주용 63 고려산업개발사장

▲김주환 61 내경ENG사장

▲김준기 60 보진계(주)회장

▲김찬식 65 코오롱유화공장장

▲김형동 63 대한석탄공사본부장

▲노해규 67 건화ENG회장

▲명계복 60 동일기술공사대표

▲명태현 50 송원기업대표이사

▲박민태 72 태광화학공업대표

▲박승준 60 외대법인사무실

▲박의현 57 삼경건설대표이사

▲박정옥 70 한국안전시스템

▲박조웅 59 삼광건설사장

▲박준창 49 삼창화학공업회장

▲백재익 63 삼복종합건설대표

▲서문호 74 건국대학교수

▲서민석 66 동일방직(주)회장

▲서정옥 57 한국이동통신사장

▲심인보 57 (주)POS AC사장

▲안재후 56 서울대학교수

▲염사연 71 현대ENG상무

▲이근호 71 대제통상상무이사

▲이기화 57 태광산업대표이사

▲이동호 57 효성중공업고문

▲이봉주 71 현대종합금속대표

▲이승원 47 서울대명예교수

▲이영학 63 전서울산업대학교수

▲이정환 48 서울대명예교수

▲이창건 54 원자력연구원위원

▲장명길 74 일진산업전무이사

▲장희익 72 LG그룹상무이사

▲전기명 64 크로바교역대표

▲전용원 54 서울대학교수

▲정범식 71 호남석유화학상무

▲정병숙 60 한국기술사회이사

▲정보현 59 한전원자력건설단

▲정순봉 60 진전기기술사무소

▲정영식 61 울산대학교수

▲정진택 58 동서교역회장

▲정태수 64 성균관대학교수

▲조홍균 57 동부ENG사장

▲최관영 65 일건종합건축소장

▲최돈웅 58 국회의원

▲최봉준 69 범진CORP.회장

▲한희승 63 삼표중공업부사장

▲홍석도 69 금화기공전무이사

▲홍석의 63 경원산업회장

◇農科大學

▲김진팔 52 前미성농약대표

▲박영기 67 현대자동차서비스

▲박윤근 59 시사문화대표이사

▲박정수 59 영산강통제사무소

▲백남근 75 우신석유사장

▲손원교 70 강원대학교수

▲오봉국 62 서울대명예교수

▲유한웅 62 동방유량부사장

▲이달형 57 동신개발부사장

▲임영준 71 상지대학교수

▲정만재 59 충북도교육위원

▲정옥모 63 아그레브코리아

▲정운조 52 조영공업사회장

▲조성진 49 충북대명예교수

◇文理科大學

▲강신항 53 성균관대학교수

▲강지원 72 사법연수원검사

▲강현두 61 서울대학교수

▲고봉진 64 한국일보이사

▲구연규 56 前대동공업이사

▲권방웅 64 한진해운지점장

▲권영자 59 국회의원

▲김경동 59 서울대학교수

▲김덕룡 61 국회의원

▲김세종 57 유경회고문

▲김철용 59 한국관광연구원장

▲나병욱 49 경북대명예교수

▲노명호 75 서울대학교수

▲도홍렬 63 충북대학교수

▲박병진 64 국회의원

▲박용안 61 서울대학교수

▲배규한 74 국민대학교수

▲백완기 59 고려대학교수

▲서의규 72 국제강제대표이사

▲안병화 59 前한전사장

▲오근식 71 국민연금관리공단

▲오병남 63 서울대학교수

▲유양수 62 동아응용지질사장

▲윤병익 60 통일연수원교수

▲이각범 71 청와대기획수석

▲이병기 71 안기부특별보좌관

▲이병상 65 코오롱메라크사장

▲이상렬 75 목포KBS위원

▲이상원 75 케이칼銀부지점장

▲이순재 59 前국회의원

▲이용남 52 한국성서신학교

▲이정남 55 외교안보연구원

▲이정윤 58 동아일보국장

▲이주용 53 한국전자계산회장

▲이준일 66 중앙대학교수

▲임상원 62 고려대학교수

▲장희익 61 서울대학교수

▲정연하 65 하일물산대표이사

▲조영주 70 선경플라자전무

▲진홍순 74 KBS정치부차장

◇美術大學

▲노재우 55 인천교대명예교수

▲윤형규 63 광명인쇄전무이사

▲이용환 64 건국대명예교수

▲전 준 65 서울대학교수

▲최의순 57 서울대학교수

▲황창배 70 화가

◇法科大學

▲강동훈 62 조흥은행부장

▲강용식 63 국회의원

▲강태중 56 위너스버거사장

▲고대은 62 미우(주)대표이사

▲공노명 61 외무부장관

▲김경태 63 삼성자동차고문

▲김광일 62 청와대비서실장

▲김기수 56 한양대학교수

▲김길영 55 성장기업부사장

▲김도선 66 前철인병동사장

▲김동원 66 前대우투자금융

▲김문희 66 헌법재판소재판관

▲김상훈 58 변호사

▲김상훈 65 한국銀은행감독원

▲김성기 58 변호사

▲김성길 64 변호사

▲김세권 56 변호사

▲김양모 59 前신아화학감사

▲김영삼 55 변호사

▲김영수 72 장기신용은행부장

▲김영훈 59 송실대학교수

▲김윤수 75 변호사

▲김인중 60 변호사

▲김인환 66 롯데자이언츠사장

▲김정술 70 서울지법부장판사

▲김진무 64 산요반도체고문

▲김진영 73 부산고법판사

▲김형진 79 서울고법판사

▲남승우 74 풀무원식품사장

▲남재우③라전모방대표이사
▲박석인⑦금호건설법무실장
▲박영준⑧코리아리서치대표
▲박우동⑦동서법률사무처장
▲박재권⑦서울북구지청부장
▲박재윤⑨동양시멘트부회장
▲백재봉⑨한사랑교회목사
▲서규택⑨동성제약부회장
▲서두인⑨동아렌탈부회장
▲서용은⑥변호사
▲석진강⑥변호사
▲성기문⑦사법연수원판사
▲손동원⑨흥국상사고문
▲손수익⑨한국경제사회학
▲송민호⑨대전대학교수
▲신갑철⑨한국수출보험공사
▲신국환⑨삼성물산고문
▲신기남⑦국회의원
▲안보영⑦선경건설이사
▲안희대⑤법무사
▲양대치⑤대일물산대표이사
▲여상규⑦변호사
▲오성제⑦변호사
▲오재선⑥국립세무대학교수
▲원세훈⑦서울시청보건의국장
▲유재신④前전북교육위원회
▲유해덕⑤수원대학교수
▲유 훈⑤前서울대학교수
▲윤보옥⑦인하대학교수
▲윤 탁⑥YUROS무역대표
▲은승기⑥서울은행이사
▲이교림⑦대구지법부장판사
▲이기현⑤보신물산상임감사
▲이백수⑥경일감정평가법인
▲이병호⑤한국남방개발대표
▲이봉래⑥한전비서실장
▲이세창⑥선택인더스트리
▲이수진⑥대한전기협회회원
▲이순우⑥변호사
▲이시운⑤감사원장
▲이용우⑦변호사
▲이재영⑥동창실업대표이사
▲이정락⑥변호사
▲이정무⑥국회의원
▲이정환⑦한미銀行담당지점장
▲이창수⑦새마을중앙연수원
▲이흥서⑥국제화재해상보험
▲임무룡⑥강원도청환경국장
▲임연재⑦세정무역대표이사
▲장기택⑥쌍용중공업전무
▲장유석⑥국민은행로본부장
▲장재식⑥국회의원
▲장주일⑤오성인터내셔널
▲장지환⑥쌍용건설대표이사
▲장 호⑦변호사
▲장흥덕⑥신용보증기금부장
▲전순호④(주)포스틸사장
▲전웅진⑥미주상사대표이사
▲정귀호⑥대법원대법관
▲정문화⑥지방행정연구위원장
▲정육균⑥前범화화학사장
▲정용식⑥변호사
▲정재근⑥감정평가사
▲정재석⑤前부총리
▲정해운⑤경기대학교수
▲조대현⑦사법연수원교수
▲조동진⑦호텔롯데상임이사
▲조병륜⑥명지대학교수
▲조왕제⑥인천투자금융사장
▲조정만⑥양지화원대표이사
▲조정제⑤변호사
▲주진학⑤변호사
▲천경송⑥대법원대법관

▲최기정④한전기획처장
▲최병철⑥남정건설대표이사
▲최연희⑥국회의원
▲최제동⑥포항시부시장
▲하성대⑥前세방그룹감사
▲한민춘⑥변호사
▲한주상⑥대경특수강전무
▲한후진⑥오션퍼시픽마케팅
▲함영업⑥변호사
▲현명관⑥삼성화장비서실장
▲홍성우⑥변호사
▲황규언⑥동화약품사장
▲황우려⑥국회의원

◇師範大學

▲곽철규⑦충북대학교수
▲구창모⑤前청담고교교장
▲구현희⑥국립세무대학교수
▲길우석⑥삼지화성부사장
▲김낙승④前청운중학교장
▲김상기⑥문화방송보도국
▲김석현⑥한양대학교수
▲김용길⑥경기대학교수
▲김인환⑥태흥건설대표이사
▲노두호⑤금성고교교장
▲문윤길⑥변호사
▲박남혁⑥서울과학교육원
▲박종세⑥아시아컴 회장
▲배종무⑥국회의원
▲신동일⑥경인유조회장
▲신용래⑥경남교육청
▲신현식⑥도곡중학교장
▲유경근⑥서울산업대부교수
▲윤명렬⑥광양중학교장
▲이상연④前중원중학교장
▲이유택⑥동대문구부구청장
▲이종욱⑥은곡공고교장
▲이춘산⑦갈릴리온복음교회
▲이환의⑥前국회의원
▲임홍조④금성교과서사장
▲장선식⑥노동부산업안전국
▲정광삼⑥교육부연구관
▲조규삼④前서울사대부교
▲최기림⑥상림기업사장
▲한도연⑥산정극기훈련원
▲허석구⑦고려냉장회장

◇商科大學

▲갈정웅⑦대림통신부사장
▲권영진④신한은행감사
▲권오학⑥임광토건부사장
▲김기석⑥오양수산대표이사
▲김기일⑥前중앙투자신탁
▲김기중⑥(주)경방대표이사
▲김도연⑥한솔제지부사장
▲김동수⑥한국기업개발금융
▲김상규⑥금성물산회장
▲김성기⑦서울대학교수
▲김성렬⑥선물거래부사장
▲김성주⑥진솔에너지회장
▲김승웅⑥대양산업감사
▲김신정⑥한국3M부회장
▲김연조⑥중앙투자금융사장
▲김영만⑥국제화재보험사장
▲김영준⑥한일캐펫사장
▲김영찬⑥경안상호신용금고
▲김우년⑥前삼익악기전무
▲김원길⑥국회의원
▲김윤환⑥고려검정대표이사
▲김종근⑥비지니스다이내믹
▲김창달⑦前종합기술금융
▲김창호⑥(주)보배전무이사
▲노경섭⑦한화그룹부사장

▲노영구⑥세한종합금융사장
▲류형벽④우화산업회장
▲박경상⑥성업공사사장
▲박병준⑦강원산업사장
▲박상은⑥리스금융협회장
▲박수기⑥제일정기회장
▲박영일⑥전파방송관리국장
▲박임원⑤(주)유성회장
▲박재운⑥통상산업부장관
▲박중후⑥前한전동부지점장
▲박희준⑦모터로라반도체
▲백영택⑥서광기획광고사장
▲서 행⑥가산상사대표이사
▲소재수⑥향진기획대표이사
▲손석주⑥남광ENG회장
▲송진섭⑥前한미강업
▲안재원⑥동일니트대표이사
▲오규환⑦삼덕물산대표이사
▲오장환⑥(주)경방상임고문
▲우덕창⑥쌍용양회부회장
▲우두현⑦삼이실업대표이사
▲우완식⑥한화에너지사장
▲윤용찬⑥조흥銀行대문지점
▲이건재⑥오정약품대표이사
▲이구용⑥한솔건설대표이사
▲이상선⑥(주)경방상임감사
▲이승영⑥삼성신용카드사장
▲이영기④서울대명예교수
▲이영택④대한싸이로사장
▲이은방⑥(주)CTI대표
▲이흥주⑥국민銀行당동지점
▲장동훈⑥前대한손해보험協
▲장만화⑥서울은행전무이사
▲장병수⑦현대투자자문전무
▲장소익⑥우일상사회장
▲정영기⑥前대양금속(주)
▲정영로⑥제일銀영등포지점
▲정재경⑦동영흥산대표이사
▲정택순⑦NHF무역감사
▲제정오⑥한국銀行사부장
▲최구관⑦前상은시스템개발
▲최동렬⑥한일리스금융사장
▲최명규④前대전투자금융
▲최주완④대우할부금융사장
▲한상현④세방여행사고문
▲한재봉④(주)파월회장
▲허남립⑥前삼성전자이사
▲홍영국④조선내화공업상무
▲홍일표⑥한국銀行강남지점장
▲황원오⑥조폐공사이사장

◇獸醫科大學

▲계봉구⑥동원신약대표이사
▲권종국⑥前서울대학교수
▲김성원⑥서울보건환경研
▲김운찬⑦코리아메디아사장
▲김재원⑥조양축산회장
▲오창영⑥서울대공원연구실
▲윤무중⑥한국야쿠르트유업
▲이용우⑦국립보건원교수
▲이희구⑥前범한약품상사

◇藥學大學

▲공영석⑦영신약국
▲곽효성⑦(주)종근당이사
▲김규호⑥새서울약국
▲김동춘⑥前대원제약부회장
▲김영일⑥유한화학공업상무
▲김영호⑥공직자윤리위원회
▲박승규⑥장수약국
▲빈판호⑥제일약국
▲오원식⑥태평양화학부사장
▲윤광철⑥윤약국

▲이윤재⑥한일약국
▲이창기⑥대륙ENG회장
▲이흥석⑥서울제약전무이사
▲장학순⑥신신제약고문
▲정원근⑥前서울대학교수
▲조을형⑥천경약국
▲홍사황⑥홍약국

◇音樂大學

▲금난새⑦수원시향지휘자
▲김명희⑥한국성악회의사
▲김용진⑦前서울대학교수

◇醫科大學

▲강세철⑥강세철의원장
▲강신일⑥내과의원장
▲강윤식⑦서울외과클리닉
▲강조웅⑥서울정형외과원장
▲고영박⑦한림대학교수
▲곽일룡⑥前서울대학교수
▲권기택④권안과의원장
▲김복린⑥백병원산부인과
▲김상우⑥인제대학교수
▲김성덕⑦서울대학교수
▲김시환⑥서울대학교수
▲김영균⑥동아제약상임고문
▲김영룡⑥백병원클리닉부장
▲김종환⑦前서울대학교수
▲명호진⑥前서울대학교수
▲문익주⑥외과의원장
▲문효중⑥피부비뇨기과의원
▲박광수⑦산부인과의원장
▲박상용⑥서부병원과장
▲박상철⑦서울대학교수
▲박한철⑥한양대학교수
▲방성호⑦동인의원장
▲신용찬⑥시민병원원장
▲우원형⑥우산부인과의원장
▲원필호⑥미죽의원장
▲이근식⑥내과의원장
▲이문호⑥아산의료재단
▲이민호⑦한양대학교수
▲이봉화⑦한림대학교수
▲이용섭⑥이산부인과의원장
▲이우천⑦한일병원정형외과
▲이종구⑦서울중앙병원
▲이필영④
▲이항진⑥내과의원장
▲정용화⑥산부인과의원장
▲정태완⑦영일의원장
▲조병규⑦서울대학교수
▲조보연⑦서울대학교수
▲주근원④한국자동차보험
▲최병휘⑦중앙대학교수
▲최성배⑥서울대학교수
▲최정연⑦서울대학교수
▲하권익⑥삼성의료원
▲함창국⑦한양대학교수

◇齒科大學

▲김경애⑥치과의원장
▲김덕상⑥치과의원장
▲김영선⑥치과의원장
▲김정균⑥치과의원장
▲김종철⑦서울대학교수
▲김철호⑦치과의원장
▲노철진⑥치과의원장
▲문진석⑥치과의원장
▲배우홍⑥치과의원장
▲배현성⑦치과의원장
▲양영태⑦치과의원장
▲여수철⑥여치과의원장
▲유세창⑥유치과의원장

▲이시우⑥이치과의원장
▲이언호⑥청조치과의원장
▲이용오⑥치과의원장
▲임창윤⑥서울대학교수
▲장영정⑥치과의원장
▲조기호⑥부부치과의원장
▲최 단⑦치과의원장
▲최재합⑥삼양치과의원장
▲한건웅⑦한치과의원장
▲홍경택⑦홍치과의원장
▲황규선⑥국회의원

◇大學院

▲윤재한⑥서울대학교수
▲황성균⑦국회의원
▲황효섭⑥피부비뇨기과의원

◇經營大學院

▲서대윤⑥관동대학교수
▲유진성⑦오성코퍼레이션
▲이만상⑦前대영볼트사장
▲이상선⑥(주)경방감사

◇保健大學院

▲강신효⑦동흥한의의원장
▲김미배⑦삼육간호전문대
▲김진순⑦한국보건사회研
▲윤석춘⑥한국산업안전공단

◇司法大學院

▲김용환⑥변호사
▲이건개⑥국회의원
▲이우길⑥변호사
▲최병국⑦대검공안부장

◇新聞大學院

▲임채욱⑦문화정책개발원

◇行政大學院

▲권문용⑦강남구청장
▲김화남⑦국회의원
▲서정현⑥특허청기획실
▲어창수④대림공영고문
▲이종찬⑦국회의원
▲이훈성⑦前한국물가협회
▲정국현⑦환경부국장
▲조일호⑦농림수산부차관
▲최종대⑥변호사

◇環境大學院

▲박춘배⑦주택사업공제조합
▲박형석⑦우보ENG부회장

◇국가정책과정

▲김인영②국회의원
▲서정화②국회의원

일	반
---	---

◇人文大學

▲권유현⑥	▲권형돈⑥
▲김명숙⑥	▲김영란⑥
▲김용만⑥	▲김월희⑥
▲김자영⑦	▲김필수④
▲김학성⑥	▲문안나⑥
▲박성수⑥	▲박정하④
▲손진욱⑥	▲심호성⑥
▲안미정⑥	▲이강근⑥
▲이재열⑥	▲이정승⑥
▲이종현⑥	▲이지혜⑥
▲이창화⑥	▲임준규⑥
▲정운광⑥	▲정정미⑥

▲조윤신⁸⁷ ▲최혜원⁹²
▲피재걸⁸⁷ ▲허영재⁸¹
▲홍성민⁸¹

◇社會科學大學

▲김기범⁸⁵ ▲김기준⁸⁸
▲김연진⁸⁹ ▲김인환⁸⁸
▲김재목⁸⁵ ▲김준하⁸⁸
▲김진하⁸⁷ ▲김충환⁷⁷
▲김현철⁸⁷ ▲남인용⁹⁰
▲민광섭⁸⁸ ▲박병룡⁸⁴
▲박진성⁸⁹ ▲서왕진⁸⁹
▲성은지⁸⁸ ▲송호근⁷⁹
▲왕윤종⁸⁵ ▲윤승로⁸⁵
▲이명현⁸⁷ ▲이원희⁸⁵
▲이창우⁸⁸ ▲이천립⁸¹
▲이현수⁸⁹ ▲임성만⁸⁵
▲장흥석⁸⁹ ▲제민호⁸⁶
▲조방수⁸⁷ ▲조상희⁸⁵
▲조학수⁷⁶ ▲주순식⁷⁷
▲최수용⁸⁷ ▲최효종⁸⁷
▲표희선⁸⁰ ▲한동원⁷⁷

◇自然科學大學

▲김규성⁸⁸ ▲김명규⁸⁹
▲김용학⁸⁹ ▲노상석⁸⁶
▲문준영⁸⁹ ▲민경석⁸⁸
▲박광식⁷⁸ ▲박도진⁹⁴
▲박상욱⁸⁹ ▲서의훈⁷⁸
▲신정훈⁸⁷ ▲유선일⁸⁹
▲이도원⁷⁸ ▲이명균⁸⁰
▲이상구⁸⁵ ▲이상범⁸⁴
▲이인근⁸⁸ ▲이태립⁸¹

▲임진영⁸⁷ ▲정경완⁸⁹
▲정현미⁸⁶ ▲조윤희⁸⁸
▲조정희⁸⁶ ▲하영화⁷⁸

◇家政大學

▲김구자⁸⁴ ▲김성은⁸⁶
▲김영숙⁷⁷ ▲김영희⁷⁴
▲김용숙⁷³ ▲김정희⁹⁴
▲민하영⁸⁸ ▲박문학⁸⁴
▲박인자⁸⁶ ▲서혜석⁷⁷
▲신귀철⁸² ▲이경창⁵⁴
▲이선영⁸² ▲이임숙⁷²
▲정성혜⁸² ▲정철희⁷⁶
▲정해자⁸⁵ ▲조명숙⁶¹
▲조은자⁸⁵ ▲조혜영⁸⁰
▲최순옥⁸⁵ ▲한인수⁸²

◇看護大學

▲김기주⁷⁰ ▲김명자⁵⁹
▲남은숙⁷⁹ ▲노자경⁸⁸
▲방경숙⁸⁵ ▲신은숙⁸⁹
▲이기춘⁷⁶ ▲이추월⁵⁴
▲천미혜⁸⁷ ▲함명림⁷⁶

◇經營大學

▲강두석⁸⁹ ▲강인석⁸³
▲강호석⁸⁸ ▲김건우⁷⁸
▲김광일⁸⁹ ▲김덕영⁷⁸
▲김석진⁷⁸ ▲김정환⁷⁸
▲김학운⁸⁶ ▲노재현⁸⁸
▲류상기⁸² ▲문진환⁸⁸
▲박세환⁸⁹ ▲박원우⁸²
▲백우현⁷⁸ ▲사진우⁸⁸

▲신수정⁹⁴ ▲신윤철⁷⁸
▲안화주⁸⁸ ▲엄요섭⁸⁹
▲윤태훈⁷⁷ ▲윤한웅⁸⁶
▲이강복⁸⁸ ▲이종인⁷⁷
▲임근상⁸⁶ ▲조재근⁸⁰
▲하현봉⁸⁶

◇工科大學

▲강문석⁸⁹ ▲강부건⁶⁹
▲강상구⁷¹ ▲강영수⁷⁰
▲강운걸⁵⁷ ▲강정환⁷⁰
▲강호익⁶⁴ ▲강희동⁶¹
▲고시현⁷⁵ ▲고일룡⁵⁷
▲고준수⁷⁶ ▲고종명⁵¹
▲고회영⁷⁶ ▲곽동수⁵⁷
▲곽희로⁶⁷ ▲권순철⁷⁸
▲권창현⁷⁷ ▲권혁준⁵³
▲김경락⁶¹ ▲김광성⁷⁹
▲김대웅⁶⁷ ▲김동관⁸²
▲김동수⁸² ▲김명린⁶⁵
▲김무영⁶⁵ ▲김문규⁶⁷
▲김문환⁶⁹ ▲김병환⁶⁴
▲김상필⁶⁴ ▲김선준⁸⁰
▲김성로⁵⁶ ▲김성배⁷²
▲김성우⁶³ ▲김수경⁷²
▲김연호⁷⁵ ▲김영화⁶³
▲김용권⁸³ ▲김용운⁸⁸
▲김용훈⁸⁹ ▲김용기⁶⁵
▲김원만⁵³ ▲김원태⁶¹
▲김응섭⁶⁶ ▲김인상⁷¹
▲김인선⁶⁹ ▲김재중⁵³
▲김정길⁸⁵ ▲김정덕⁷⁶
▲김종은⁷¹ ▲김진규⁸⁵

▲김진무⁶⁹ ▲김태성⁶⁶
▲김태성⁷⁰ ▲김태훈⁷⁰
▲김택진⁸⁹ ▲김현주⁵⁸
▲김효원⁶³ ▲김휘중⁷¹
▲나상천⁷⁵ ▲나장근⁹³
▲나형용⁵⁸ ▲남재도⁸⁴
▲노 광⁸¹ ▲노태성⁸²
▲노환영⁶² ▲류해진⁸⁷
▲문재창⁷³ ▲문제춘⁷⁸
▲박기선⁶⁰ ▲박동식⁷²
▲박병덕⁸⁸ ▲박성현⁷⁵
▲박세화⁸⁸ ▲박시동⁶⁶
▲박신규⁶⁸ ▲박영근⁷⁵
▲박우상⁵⁸ ▲박정남⁷³
▲박철우⁷⁶ ▲박태형⁸⁰
▲배병선⁸⁴ ▲배승환⁵⁸
▲배영훈⁷⁹ ▲백봉근⁵⁴
▲백영현⁷¹ ▲백윤해⁶²
▲변재복⁵⁴ ▲변형직⁵¹
▲서진우⁸⁴ ▲서현석⁸⁹
▲선우석⁷⁴ ▲설승기⁸⁰
▲송남영⁷⁹ ▲송부호⁶⁷
▲신근식⁷⁰ ▲신동현⁴⁹
▲신성철⁷⁹ ▲신영호⁸¹
▲신정부⁶⁵ ▲신철호⁸⁶
▲신충선⁸⁹ ▲신충섭⁷²
▲안 섭⁸³ ▲안승원⁷⁵
▲안정준⁶⁴ ▲양만영⁶⁷
▲양우현⁸² ▲여영구⁷⁹
▲여운관⁵⁷ ▲염규섭⁶⁰
▲오재건⁶⁵ ▲오준석⁸⁷
▲우상룡⁷⁶ ▲우영보⁵⁹
▲원종희⁷⁹ ▲유기형⁷¹
▲유인종⁷⁹ ▲유준만⁷⁰
▲유대용⁵⁵ ▲유 풍⁶⁰
▲유필상⁷³ ▲윤여경⁵²
▲윤익성⁹⁶ ▲윤재욱⁷¹
▲윤종구⁸² ▲윤홍갑⁶²
▲이강현⁵⁷ ▲이건채⁶⁵
▲이귀영⁷³ ▲이근욱⁸⁸
▲이돈원⁹⁵ ▲이명호⁵⁷
▲이무호⁵⁹ ▲이병호⁸⁷
▲이병호⁹⁵ ▲이병훈⁸²
▲이상원⁶⁹ ▲이상화⁷²
▲이상희⁶⁹ ▲이용훈⁵⁵
▲이종원⁶⁸ ▲이종찬⁸⁹
▲이진근⁴¹ ▲이창식⁷²
▲이충길⁶⁸ ▲이화영⁷⁵
▲임규원⁶⁵ ▲임만직⁶⁰
▲임용규⁸⁸ ▲임준석⁸⁶
▲장문현⁶³ ▲장성훈⁸⁵
▲장충식⁵² ▲전 윤⁶⁴
▲정건식⁵⁹ ▲정구필⁸⁹
▲정도섭⁶⁶ ▲정문조⁷³
▲정성균⁸² ▲정원영⁵⁶
▲정진승⁶⁴ ▲정현일⁶⁴
▲조용철⁸⁸ ▲조원행⁷²
▲조주현⁷⁸ ▲조진형⁹⁴
▲조태현⁶⁸ ▲주희전⁴⁷
▲차상균⁸⁰ ▲차성한⁷²
▲차장욱⁶⁵ ▲채 철⁶⁵
▲최경락⁷⁴ ▲최병국⁸⁵
▲최석부⁷⁵ ▲최성배⁸⁶
▲최정길⁶⁹ ▲최종식⁸²
▲편종근⁷⁰ ▲한록희⁸⁵
▲한순교⁵⁵ ▲한재천⁸²
▲허종태⁹⁴ ▲홍남표⁵⁹
▲홍대형⁶⁹ ▲홍성관⁶⁶
▲홍순일⁵⁷ ▲홍종민⁶⁸
▲황일수⁸³ ▲황정환⁶⁹

▲강성모⁷⁰ ▲강정모⁶⁹
▲곽종한⁵² ▲구능완⁶⁰
▲금태섭⁸² ▲김공래⁸⁶
▲김동춘⁴⁷ ▲김몽섭⁶⁷
▲김문수⁶⁰ ▲김영호⁷⁷
▲김완기⁶⁹ ▲김정국⁴⁷
▲김주형⁷³ ▲김철환⁶⁴
▲김현성⁷⁹ ▲김형수⁵²
▲노기환⁷¹ ▲문효창⁵³
▲박경호⁷² ▲박삼선⁸⁴
▲박순조⁶¹ ▲박승걸⁶⁷
▲박영인⁶² ▲박장렬⁵⁷
▲박재현⁵³ ▲박진규⁸⁸
▲박형일⁹⁰ ▲박희구⁵⁶
▲송기종⁶² ▲신단균⁵⁸
▲신영문⁷⁵ ▲안상원⁶¹
▲안재숙⁵³ ▲오종환⁶⁴
▲우상호⁶⁵ ▲원하연⁷¹
▲유대식⁶² ▲유원석⁶⁵
▲윤화주⁷³ ▲이강세⁶⁴
▲이근희⁶⁹ ▲이순옥⁷⁴
▲이흥기⁷¹ ▲임명균⁶²
▲임병구⁶⁶ ▲임상봉⁸⁶
▲장병욱⁶⁹ ▲정건성⁶⁷
▲정기선⁷⁹ ▲정선욱⁹⁵
▲정택⁷⁸ ▲정중수⁶⁴
▲정태봉⁵⁵ ▲조성동⁶⁸
▲조성호⁸² ▲조성환⁵⁶
▲조수경⁷⁶ ▲조원구⁷⁴
▲조철희⁷⁷ ▲주석화⁸⁵
▲최승호⁸³ ▲최정권⁷⁹
▲하인환⁵⁵ ▲한계창⁷⁴
▲한상원⁵⁵ ▲현승길⁶⁹
▲홍세진⁸⁷

◇文理科大學

▲강기진⁷⁰ ▲강주희⁵⁴
▲강진원⁵⁹ ▲고문환⁶⁶
▲고성광⁶⁷ ▲곽원호⁷²
▲구춘회⁵⁰ ▲권광명⁶⁰
▲권영명⁶⁰ ▲권혁정⁶³
▲김경진⁷⁵ ▲김경화⁷³
▲김구현⁵⁸ ▲김명석⁷²
▲김명한⁶⁵ ▲김석규⁶²
▲김선리⁶⁸ ▲김영삼⁵¹
▲김영섭⁵⁹ ▲김영수⁶⁸
▲김영철⁷¹ ▲김용태⁵⁶
▲김원명⁵⁷ ▲김을영⁶⁰
▲김인빈⁶⁴ ▲김재부⁷²
▲김정애⁷⁰ ▲김정희⁵⁶
▲김종섭⁷⁰ ▲김준기⁶⁶
▲김호준⁶⁵ ▲김희영⁵⁶
▲남대극⁶⁷ ▲노건일⁶⁴
▲문명호⁶⁴ ▲문양수⁶³
▲민석홍⁴⁸ ▲박계주⁶⁰
▲박무익⁶⁷ ▲박민흠⁶⁰
▲박범수⁶³ ▲박병언⁶⁵
▲박상우⁶⁴ ▲박영기⁶²
▲박일규⁶³ ▲박재길⁷⁵
▲박정자⁶⁵ ▲박창중⁷⁵
▲박철홍⁵⁰ ▲박희구⁷⁰
▲배광선⁷⁰ ▲배길훈⁷⁰
▲백영철⁶⁶ ▲서대원⁷³
▲성찬경⁵⁷ ▲손문자⁶²
▲송기일⁵⁹ ▲송대현⁵⁶
▲송민준⁷⁵ ▲송병철⁴⁷
▲송영호⁷² ▲신경민⁷⁵
▲신현웅⁶⁸ ▲심사수⁶⁰
▲양동철⁶² ▲양서영⁵⁷
▲어한수⁵⁹ ▲오인환⁶¹
▲유연수⁶³ ▲유재홍⁶⁷
▲유재홍⁶⁴ ▲유창현⁷²

▲윤재문⁷⁰ ▲윤종주⁵⁵
▲윤창구⁶⁷ ▲이귀경⁵⁶
▲이극찬⁵⁰ ▲이근수⁷⁵
▲이민용⁴⁹ ▲이민호⁶²
▲이석훈⁶² ▲이수택⁶⁸
▲이영록⁵⁴ ▲이재관⁶⁸
▲이주영⁶⁵ ▲이 준⁶⁸
▲이준재⁶⁴ ▲이중길⁶⁷
▲이필원⁶⁵ ▲이현석⁷⁰
▲이현순⁶⁰ ▲임기목⁶⁹
▲장갑석⁵⁷ ▲전명애⁶⁶
▲전병학⁶⁸ ▲정구호⁵⁹
▲정구훈⁷⁰ ▲정기용⁵⁹
▲정민희⁶⁰ ▲정운택⁴⁹
▲조진형⁶⁴ ▲주영길⁷¹
▲지경호⁶⁴ ▲최임순⁵³
▲한영호⁶² ▲허용성⁶⁵
▲홍승수⁶⁷ ▲홍승오⁶⁸
▲황원근⁷⁰

◇美術大學

▲계동훈⁶³ ▲권영걸⁷⁶
▲김경인⁶⁷ ▲김금출⁵⁵
▲김서봉⁵⁴ ▲남 철⁶²
▲민경우⁷⁰ ▲박상희⁸⁶
▲박숙희⁶² ▲박한진⁶¹
▲백명진⁷⁹ ▲서석례⁵⁸
▲손문자⁶⁶ ▲오용목⁶⁴
▲유신혜⁸⁷ ▲윤미혜⁸⁰
▲이명재⁸⁰ ▲이문숙⁷⁰
▲이송희⁸³ ▲이운식⁶¹
▲이정임⁸⁸ ▲이정혜⁹⁵
▲이철주⁶⁷ ▲장혜용⁷³
▲조희영⁶⁸ ▲주해준⁶¹
▲지윤미⁶⁶ ▲최정룡⁶⁷
▲한혜경⁷⁹ ▲홍경희⁷⁰

◇法科大學

▲강봉제⁴⁸ ▲강 용⁶⁵
▲강운기⁶¹ ▲강이수⁶³
▲강홍구⁵⁷ ▲경재영⁵⁶
▲고영한⁷⁸ ▲권경식⁵²
▲권영세⁶⁴ ▲권호영⁸²
▲김경태⁸⁰ ▲김광섭⁸⁸
▲김광진⁷⁹ ▲김규식⁵⁸
▲김근대⁶⁷ ▲김대성⁸⁵
▲김도인⁸⁸ ▲김상준⁷¹
▲김선병⁸⁵ ▲김선중⁷⁸
▲김선주⁷¹ ▲김수장⁶⁶
▲김영식⁷⁰ ▲김용래⁵⁷
▲김인주⁷² ▲김정호⁸⁴
▲김중성⁸⁵ ▲김진병⁸⁹
▲김철자⁶³ ▲김태우⁷⁷
▲김학문⁵⁷ ▲김환수⁸⁹
▲나종훈⁶⁸ ▲민예순⁶¹
▲박봉규⁷⁴ ▲박종규⁷⁹
▲박 찬⁷⁰ ▲배재욱⁶⁸
▲변동걸⁷⁰ ▲서돈각⁴⁶
▲서상현⁵⁵ ▲성종욱⁶⁵
▲손종대⁷⁰ ▲신명호⁶⁶
▲신상갑⁵⁷ ▲심규철⁸⁰
▲안동수⁶³ ▲심의석⁶¹
▲안성희⁷⁰ ▲안병익⁸⁹
▲여미숙⁸⁸ ▲양병호⁴⁰
▲오성식⁵² ▲오문희⁷⁰
▲오진환⁷⁹ ▲오정돈⁸³
▲우영진⁵⁶ ▲육군식³⁹
▲유승남⁸⁶ ▲유상규⁶⁷
▲윤석정⁷¹ ▲유재선⁶⁷
▲윤종근⁸⁹ ▲윤재열⁵⁵
▲이기배⁷⁵ ▲이대원⁴⁵

「관악홀 의자 실명제」에 동참을!



본회는 동문 3백명에게서 각 10만원씩을 기증받아 고급의자를 제작, 의자 뒷부분에 출연자의 성명과 출신대학을 명기하는 「관악홀 의자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동창회관이 서울대인의 진정한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8~10월 출연자 명단

△奇宇奉(현대엔지니어링 상임고문) △金錫鍵(태국지부동창회장) △金仁中(변호사) △金鍾祺(인천성현고교이사장) △朴金玉 △朴在潤(통상산업부장관) △石昌仁(석치과의원) △沈相昊(포항공대 대학원 재학중) △沈玉順 △梁培德(국방과학연구소) △吳仁錫(재미총동창회 수석부회장) △劉鼎圭 △李昇烈 △李信子(덕성여대교수·미대동창회장) △李春虎(새서울정형외과) △張明化 △鄭幸旭 △鄭喜庚((주)원상대표이사) △崔慶元 △崔春欽(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도움주실 동문은 온라인 입금후 전화연락 바랍니다. 온라인: 조흥은행 397-03-002804(김재순) 전화: 702-2233

◇農科大學

▲이동득63 ▲이민섭64
▲이민희80 ▲이빈송63
▲이병식59 ▲이수길66
▲이영권65 ▲이영규65
▲이원기85 ▲이원재85
▲이인화58 ▲이재관75
▲이재성73 ▲이종진61
▲이지우64 ▲이직주43
▲이철신64 ▲이태건85
▲이학무59 ▲임양운75
▲장순환44 ▲장지훈84
▲전성호60 ▲전수안75
▲정종섭81 ▲조경래55
▲조관행65 ▲조 춘84
▲지승원72 ▲지철호82
▲차동천69 ▲최광수57
▲최우석83 ▲최지영59
▲한영수88 ▲한형건54
▲허 준59 ▲현복수58
▲홍기인59 ▲홍동환41
▲홍순범52 ▲황성규85
▲황승연75 ▲황용화65

◇ 師範大學

▲강인상70 ▲곽영우58
▲곽완영55 ▲곽형기75
▲권일춘72 ▲권혁봉60
▲권희정84 ▲김광웅64
▲김국태63 ▲김노중60
▲김덕기61 ▲김동환84
▲김득실44 ▲김무웅64
▲김미자60 ▲김병수64
▲김보현56 ▲김봉근64
▲김상현70 ▲김숙자47
▲김영국73 ▲김영철56
▲김용복61 ▲김정문77
▲김정숙59 ▲김정순69
▲김주화69 ▲김진악59
▲김태식78 ▲나정환66
▲나청운64 ▲남규국43
▲노명완73 ▲노영희75
▲노은영72 ▲문영권64
▲박노옥65 ▲박배준67
▲박신희78 ▲박은자68
▲박정숙70 ▲박정운62
▲박종모64 ▲박종현62
▲박찬욱73 ▲박창만69
▲배상식67 ▲백명기55
▲백현기51 ▲서부영74
▲서영원64 ▲송영재63
▲신정선60 ▲신중성65
▲심낙기54 ▲안광일65
▲안정화59 ▲안종만57
▲안종환59 ▲염도균65
▲오정세64 ▲유명수65
▲유송옥61 ▲유재택73
▲유성수68 ▲윤송자41
▲이건세69 ▲이규희38
▲이기영72 ▲이동균69
▲이동식76 ▲이명순44
▲이병관57 ▲이병룡70
▲이순권77 ▲이연수88
▲이영자44 ▲이영자60
▲이용재63 ▲이용정49
▲이용현57 ▲이재경88
▲이종만57 ▲이진홍69
▲이진희89 ▲이흥자74
▲임번장64 ▲임부철86
▲임수진88 ▲임영관61
▲장효원41 ▲전영란69
▲정갑표61 ▲정일섭69
▲정철정71 ▲정태무49

▲조덕천71 ▲조명조85
▲조병두65 ▲조정휘65
▲지충성61 ▲진성덕60
▲최기숙60 ▲최병찬45
▲최수옥59 ▲최용섭59
▲최호섭64 ▲하상기78
▲한종하66 ▲함원식49
▲현경애40

◇ 商科大學

▲강낙원65 ▲강대호52
▲강봉균69 ▲강영복55
▲강완기74 ▲강춘규66
▲곽지용53 ▲권영욱58
▲김국주68 ▲김병식72
▲김상남70 ▲김소곤61
▲김시담62 ▲김신정69
▲김안웅71 ▲김영수56
▲김영식70 ▲김영철70
▲김윤일70 ▲김준호72
▲김진천71 ▲김태현62
▲나진원71 ▲노창승85
▲박윤석61 ▲박지중70
▲박태준72 ▲서병영65
▲심성희64 ▲심재강70
▲심창순64 ▲안해자57
▲엄봉성74 ▲연영규58
▲오남호61 ▲오수길67
▲우일균56 ▲원정연67
▲위계신58 ▲유석재73
▲육동진57 ▲윤봉용64
▲이강순59 ▲이건식74
▲이경훈67 ▲이관규65
▲이 단59 ▲이동훈59
▲이만순63 ▲이병대65
▲이상린69 ▲이상훈74
▲이석순59 ▲이선호64
▲이성위65 ▲이연우70
▲이영상55 ▲이영상64
▲이은면53 ▲이인용56
▲이학갑69 ▲이해익64
▲임영식64 ▲임영철67
▲임창열66 ▲장기호74
▲장명국70 ▲장병완75
▲장세진72 ▲장인주73
▲전영주56 ▲정의연68
▲정주호72 ▲조은구58
▲주원식64 ▲채수한60
▲최경식63 ▲최준철65
▲허판석65 ▲홍성철48
▲황의길61

◇ 獸醫科大學

▲강 호68 ▲김만영54
▲김영주92 ▲김영춘58
▲김종민92 ▲김 찬55
▲김창수68 ▲김태화61
▲나길현65 ▲박성규63
▲서승창58 ▲원병희65
▲이성모82 ▲이정인76
▲임응수63 ▲임천복76
▲조명제79 ▲최홍철73

◇ 藥學大學

▲고건일64 ▲고광호69
▲공영운64 ▲공영주63
▲김건식49 ▲김영수76
▲김옥선59 ▲김완희72
▲김정희61 ▲김지학76
▲김창근70 ▲김창렬43
▲박창규56 ▲박창서74
▲박현배49 ▲백덕우57

▲백우현59 ▲서성수57
▲서종완64 ▲송문정94
▲신복영76 ▲신찬영91
▲심관섭56 ▲심규장74
▲안명자62 ▲오동환57
▲유도봉74 ▲유재렬57
▲윤두석56 ▲윤성준72
▲윤형중61 ▲은종필50
▲이갑희57 ▲이계하76
▲이규승57 ▲이용운58
▲이재한66 ▲이정우53
▲이해돈75 ▲이해정49
▲이현순50 ▲이흥희85
▲장충남65 ▲정문상70
▲조병현55 ▲주갑순52
▲차기현64 ▲최병균56
▲한대석51

◇ 音樂大學

▲고태은83 ▲김경혜85
▲김길운70 ▲김명자68
▲김민자70 ▲김새별71
▲김완주90 ▲박정순60
▲박정자64 ▲박희덕81
▲서인선59 ▲손명진75
▲송복자88 ▲안돈나72
▲윤혜경88 ▲이영주65
▲이재권84 ▲조명희69
▲최경혜68 ▲최구혜65
▲최덕식81 ▲최용호72
▲한형실81 ▲홍성욱62
▲홍영자59 ▲홍은주80
▲홍정표59

◇ 醫科大學

▲금인섭84 ▲김기곤57
▲김동수83 ▲김동집58
▲김명진78 ▲김명환51
▲김병식82 ▲김영태88
▲김종만59 ▲김진천60
▲남상익61 ▲남현석65
▲류승무88 ▲민학진64
▲박우윤84 ▲박준우81
▲석세일58 ▲심웅석65
▲유왕성81 ▲유정현66
▲유필문72 ▲유 현69
▲윤병우80 ▲윤석주79
▲이관희82 ▲이광수41
▲이근후83 ▲이동환73
▲이무용88 ▲이선형76
▲이승철75 ▲이원기85
▲이원형70 ▲이흥규68
▲임창제45 ▲정제일59
▲정진호84 ▲조병주52
▲지석봉81 ▲차알보59
▲차인식79 ▲차흥원82
▲최영길59 ▲최 현80
▲최현규58 ▲하종원85
▲한태형85 ▲홍기석74
▲홍학진35

◇ 齒科大學

▲강신구71 ▲권택중86
▲김건모72 ▲김남주59
▲김영무58 ▲김용철70
▲김재형77 ▲김정복78
▲김중수72 ▲김진숙89
▲김효순75 ▲노중준43
▲문창남62 ▲박명선83
▲박미경88 ▲박은기79
▲박익원57 ▲박충엽56
▲서영규45 ▲손동수63

▲안규소72 ▲오종우72
▲유홍렬83 ▲윤찬송83
▲이금룡64 ▲이기식70
▲이명제81 ▲이원균81
▲이의웅65 ▲이종우61
▲이종진70 ▲이창우81
▲임광수66 ▲임택재61
▲조영학69 ▲조한준57
▲한수부67 ▲허정규69
▲홍찬의79 ▲황 경57

◇ 大學院

▲김덕환77 ▲김승평80
▲김형국67 ▲변종영71
▲신응배65 ▲안건훈76
▲윤경현64 ▲이남주89
▲이택호80 ▲조태승87
▲지제근64 ▲한우근48
▲한정호82 ▲홍종각86

◇ 經營大學院

▲김무웅70 ▲김일란70
▲손영수72 ▲이훈용70

◇ 教育大學院

▲박찬부65 ▲최홍규88

◇ 保健大學院

▲김만봉70 ▲박남영60
▲서광석81 ▲윤배중82
▲정혜운66 ▲조기원89
▲진홍욱87 ▲한운우87

◇ 司法大學院

▲김경일69

◇ 新聞大學院

▲유종일74 ▲최성봉73
▲최영일75

◇ 行政大學院

▲강필구65 ▲김광영81
▲김태수87 ▲문병환69
▲박영국64 ▲박정훈61
▲서일수69 ▲손병길84
▲신성섭89 ▲유금록80

▲정동준67 ▲황근식63

◇ 環境大學院

▲권용수76 ▲채미옥82

◇ 최고경영자과정

▲김병실2 ▲김병원1
▲김승무2 ▲류재홍2
▲박승만2 ▲서진하2
▲성승모1 ▲안영복1
▲양성욱1 ▲양재봉1
▲이상홍1 ▲이재선30
▲정상봉24 ▲정의순4
▲조한춘2 ▲진옥윤29

◇ 최고산업전략과정

▲고기창11 ▲김현우9
▲예상호8 ▲윤소원12
▲윤정남7 ▲장장순9
▲최강용12

◇ 고급금융과정

▲최정도1 ▲허 승2

“지금 동창회 신용카드를 신청하세요”

동문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지면
을 통해 카드 발급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카드발급안내 : 서울대총동창회 (전화 703-5952~3)
국민카드사 (전화 3700-3200)

〈발급기간 : 96년 9월 1일 ~ 9월 30일〉



金學均(55년 藥大卒)
울산시민약국



孫基燮(57년 醫大卒)
대전중앙병원장



金國洙(60년 齒大卒)
청아치과병원장



張基玉(61년 師大卒)
신성대학 학장



安定濤(64년 工大卒)
한보철강 당진제철소장



白勝禹(86년 音大卒)
경원대교수

개 인

◇ 人文大學

▲이수희88

◇ 社會科學大學

▲서경선90

◇ 自然科學大學

▲이시룡80 ▲이태훈90

◇ 看護大學

▲최화실95

◇ 經營大學

▲송인성90 ▲유정석96

◇ 工科大學

▲김성룡92 ▲박기순87
▲심원보88 ▲정한일89

◇ 文理科大學

▲정명자63

◇ 法科大學

▲김상원96 ▲박형준92
▲심재갑56 ▲황운영59

◇ 師範大學

▲김미연86 ▲안홍숙82

◇ 商科大學

▲김안웅71 ▲김재신93

◇ 音樂大學

▲원영실92 ▲장원석96

◇ 齒科大學

▲최재환51

◇ 최고경영자과정

▲이영식81